

‘헬조선 현상’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기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재현작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김애린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
임혜빈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
장한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
박주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기승연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학년*****
정윤정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김수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3학년*****
신주영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학년*****
이기형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는 ‘헬조선’ 현상을 진단한다. 특히 이 작업은 정파성을 달리하는 주요 언론들 속에 제시된 헬조선 관련 기사와 기고문, 그리고 특집을 텍스트 분석으로 진단하면서, 이 매우 복합적인 현상의 재현적인 측면의 함의와 명암을 다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헬조선으로 지칭되는 특정한 문제의식과 감정의 생산이 현재 청년층이 대면하는 매우 심각하고 불안한 사회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부상했다는 맥락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일정한 지적 비판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헬조선 현상의 재현과 함의, 언론의 활동상과 정파성, 청년 문제의 사회정치적인 함의, 텍스트 분석

* 이 논문의 초본은 2016년 8월 17일 제 14회 문화연구캠프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 논문의 최종 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제언과 비판을 주신 세 분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 carpediemar524@gmail.com, 제1저자

*** gpqlsl28@hanmail.net

**** hanslchang94@gmail.com

***** camusikos@naver.com

***** kiseungyeon@hanmail.net

***** babyvm@hanmail.net

***** shju0722@naver.com

***** hhjy123@naver.com

***** barthes@khu.ac.kr, 교신저자

잠시 청년들에게 물어주십시오. 줄줄이 늘어선 초록색 빈 병으로 어지럽혀진 대학가의 술집 취객에게, 외로움을 둘 공간조차 없이 비좁은 고시원의 세입자에게, 자정의 어둠을 몇 달 째 지켜온 무표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 나라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 주십시오. 그들은 서슴없이 멸망을 입에 담을 것입니다. 감히 멸망을 말하지만 악의조차 감지되지 않는 평온한 목소리에 당신들은 경악해야 합니다. …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며, 불공평한 생존보다는 공평한 파멸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호를 망각한 백성들처럼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릅니다. (손아람, 2015, 12, 31)

1. 문제의 제기

최근 몇 년 간 한국사회에서 청년 주체들이 대면하는 극심한 취업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신조어’이자, 청년층의 흔들리는 사회경제적인 현실을 압축시킨 대표적인 호명의 방식(mode of address)으로 ‘헬조선’ 현상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주요 인터넷 사이트와 SNS 공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현재 한국의 청년층이 대면하고 있는 극심한 어려움과 좌절, 그리고 부유하는 이들 주체들의 ‘감정구조’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표현으로 ‘헬조선’이 빈번하게 거론되고 또한 활용되고 있다.

청년층의 일상 속에서 일련의 자조적인 입장을 담은 ‘노오력’, ‘죽창’, ‘흙수저’ 등의 상징적인 표현들이나 자기혐오의 감정들이 확산되면서, 헬조선 현상은 더는 무시하기 어려운 한국사회 내 문제적인 영역의 대두와 사회적·세대적인 갈등의 단면들을 짚어내고도 있다. 한편, 다수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범주가 확장된 의미작용과 치열한 논쟁들이 공적인 공간을 가로지르며 구현되고도 있다. 이와 함께 헬조선을 둘러싼 사회적으로 증폭된 의미작용을 ‘개입적’으로 논하고 진단하는 비평담론들도 주로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 그간에 적지 않게 부상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정파성을 달리하는 언론들이 이 매우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사안을 차별적으로 의미화하는 방식에 관하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한다. 즉, 이 작업은 언론이 사회적으로 부상한 헬조선 관련 일련의 쟁점들과 관련하여 어떤 유형의 보도와 재현 작업을 제공해왔으며, 어떤 방식의(유사)논리와 판단 및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차별적인 의제화의 전술을 제기하는지를 상세하게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기획은 이 상당한 사회적 쟁점과 반향을 생성하고 있는 사안을 접근하는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간의 문제의식 차이와 관련

한 함의들은 무엇인지를 조밀하게 풀어내고자 한다. 특히 학술 영역에서 헬조선을 다루는 작업들이 지금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향성을 개선하는 연구가 발휘할 수 있는 일정한 의의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헬조선으로 압축적으로 표상되는 신조어의 부상에 언론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중반 정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 보수 일간지의 논설위원은 헬조선 현상을 주제로 한 매우 ‘논쟁적인’ 기고문 속에서 “징징대지 마라. 죽을 만큼 아프다면서 밥만 잘 먹더라”(김광일, 2015, 9, 22)라고 말하면서 냉소적인 톤으로 청년층을 나무랐고, 보수 성향의 학자는 또 다른 언론의 기고문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을 비하하며 즐겨 쓴다는 ‘헬조선’은 결국 바깥세상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나 다름없다”(박정자, 2015, 10, 17)라고 비판 일변도의 톤으로 청년층의 ‘자기비하’에 관해 일갈하기도 했다.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논하겠지만, 보수언론에 기고하는 주체들이 헬조선 현상과 이 표현을 활용하는 청년층에게 제기하는 화법과 톤은 ‘훈계하는 방식’이 큰 가시적인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언론이 헬조선 현상에 관해 부정적이거나 훈계와 비판 일변도의 논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여러 매체들은 헬조선 현상과 ‘청년 문제’를 매우 긴요한 공적 의제이자 복합적인 상징성을 발산하는 화두로 설정하면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발화하는 일련의 응어리진 목소리에—특히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조, 그리고 냉소와 분노에—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청년들의 상황을 ‘탈조선, ~층, 노오력, 노답’ 등의 핵심 키워드로 정리한 일부 언론의 특집과 장기 기획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청년 주체들을 직접 만나고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거나, 이들의 구직과 자기 관리에서 감정보동이나 일상 속 내밀한 사안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애환과 당사자들 중심의 관점을 더 다양하게 체화해내는 연작이나 ‘두꺼운’ 서술로 포착한 작업들도 등장한 바 있다.

이 작업은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6명과, 문화연구 전공자인 대학원생 2명, 그리고 문화연구자 1인이 참여하는 협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관행적인 교과 과정에서 청년층에게 긴요한 주제를 심화된 방식으로 다루기 어려운 대학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이 기획은 추진되었다. 연구진은 2016년 4월 중순에 연구팀을 구성했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헬조선 현상과 관련된 스터디를 금년 8월 중순까지 진행하였으며, 관련 자료들을 함께 읽었다. 이 과정에서 헬조선 현상을 재현하는 언론의 역할과 보도의 양상을 한층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 장 이후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층의 현실 인식과 감정구조의 특징을 진단하는 일련의 세대담론에 관련한 기존의 학술 작업과 비평담론의 특성과 명암을 살펴

본 이후에, 주요 매체들이 제시한 ‘헬조선’이라는 단어와 이슈를 포함하는 기사들과 기획물, 그리고 기고문들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아, 구현된 논점과 주장의 특징과 명암을 조명한다. 특히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청년들이 처한 불안한 현실에 관하여, 언론이 어떠한 유형의 관찰과 관점, 그리고 제언이 실린 재현작용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복합적인 진단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기사의 유형을, (1) 헬조선의 상황과 연관된 정보 제공형 및 해설형 기사와 (2) 특정 사회적 이슈 관련 기사, 특집과 연작, 그리고 (3) 기고문과 비평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고, 정파성을 달리하는 매체들이 헬조선 현상 및 청년 문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사회경제적 현황, 그리고 논쟁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과 입장의 차이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접근 방식을 주로 활용하면서 관련 쟁점과 현안을 재현하는지, 그 특징을 상세하게 탐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언론의 활동이 발휘하는 사회적인 함의에 관해 비판적인 해독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비판적 정리: 청년과 세대를 조화하는 연구들의 함의와 명암

2015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헬조선’과 일명 ‘금수저·흙수저’로 얘기되는 ‘수저계급론’은 우리 시대 사회적 불평등과 청년세대의 고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신조어로 이슈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청년’을 담론의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마구 불러내기 시작했다. (장은미, 2016, 43~44쪽)

1) ‘청년’과 ‘세대’를 조화하는 담론들의 특징과 명암

이 장에서는 언론이 재현하는 ‘헬조선’ 현상과 청년층이 발화하는 현실인식이나 집합적인 감정과 관련된 재현의 명암을 분석하기에 앞서, 청년들의 상황과 현실을 지적·비판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일련의 세대담론과 연관된 학술 작업들의 갈래와 함의점에 관해 풀어보고자 한다. 특히 헬조선이라는 상징어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회적인 구성물(social construct)이자 상당히 주목받는 ‘문제적인’ 개념이기에, 선행하는 ‘청년 주체’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복수의 관련 연구들의 특징과 문제의식, 그리고 명과 암을 먼저 논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학술 영역과 언론, 그리고 비판담론의 장에서, 청년층은 종종 새롭게

부상하는 (대중)문화의 '전위' 혹은 주류적인 문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항적인' 또는 '대안적인' 문화 생산과 소비의 '증추적인 세력'으로 다루어져왔다. 즉, 청년이라는 대상과 개념은 한국사회가 발현하는 급속한 사회변동의 동학을 집약적으로 예시하는 대표적인 '화두'이자,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구별 짓기'의 핵심적인 대상으로서 상당히 주목받아왔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사회의 소비대중적인 영역이 심대하게 확장되고, 청년층의 '참여문화'와 이들이 주도하는 '감각적인' 인디문화와 하위문화 현상 등이 크게 주목받게 되면서, 청년과 세대, 그리고 문화적인 동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사회 내 일련의 의미작용들이나 지식 생산이 매우 활발하게 생성된 바 있다(김선기, 2016; 이동연, 2004; 소영현, 2012; 박재홍, 2013; 엄기호, 2010). 이러한 과정에서 '세대'는 대안문화의 부상에서, '탈전통적인 정체성'의 부상,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가능성과 참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동학과 거시적인 문화적 변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현하고 진단하는 데에 주요한 담론적인 구성물로 부상·설정된 것이다.

특히 언론과 비평 영역에서는 '신세대 현상'이나 '광장문화'의 부상을 예시했던 2002년 월드컵 응원전이나 2008년 '촛불집회' 등의 주요 사건에서 분출된 청년층의 활동을 매개로, 이들이 기성세대와는 매우 차별적인 행태와 정치사회적인 의식 혹은 가치관을 발현하는 측면을 다양한 접근법으로 탐색·주창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꾸준히 등장하기도 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면, 2002년 월드컵 응원의 주력으로서의 청년층의 대대적인 참여나 2002년 대선에서의 청년층 참여 열기에 주목하면서, 언론은 이를 "2030세대의 힘과 'P세대' 혹은 'N세대'" 등의 신조어를 핵심으로 삼는 일련의 담론을 생산하기도 했다. 즉,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는 언론과 문화 산업, 그리고 지식인 집단에게 "최고의 정치세력이자 최고의 문화 생산자, [혹은 최고의 마케팅 대상자로 추대]되기도 했던 것이다(이동연, 2004, 136쪽). 다양한 매체와 비평가 집단은 기성세대와는 상당한 집단적인 차이점을 발현하는 청년세대의 감정과 습속에 집중하는 기사들이나 연작을 주기적으로 생산해왔으며, 이들 주체들의 정치 지향성에서 사회문화적인 차이나 세대 대결 등과 같은 관련 쟁점들에 관해 꾸준히 진단과 재현작용을 제공해왔던 것이다.

관련 논점을 조금 더 들어보면, 일군의 학자들은 기성의 성인 집단과 비교할 때, 축적된 압축 근대화화과 점증하는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청년층이 발현하는 내면의 덕목으로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더욱 소비지향적이고 수평주의적이며 탈전통적인 개인주의적 성향과 시장적 합리주의 등을 표출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기성세대와는 차별적인 가치를 체화하는 주체들로 이들을 '대상화'하기도 했다(김사과·정다혜·한윤형·정소영, 2010; 송호근 외, 2010; 홍성태, 2004; 한윤형, 2010). 예컨대 일군의 사회과학자들은 기존의 '386세대'나 '근

대화세대’와는 차별적인 행태와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자 집단으로 청년층을 지목하기도 했으며, 한국사회 내에서 부상하는 세대적 단절이나 특정 세대 내 결속의 특성, 그리고 세대 간 불합이라는 특정한 지향점을 중심으로 탐색적인 논점과 진단을 제기하기도 했다.

언론 영역과 대중문화 영역, 그리고 학술 분야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작업들은, 청년과 세대라는 개념을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며,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대안적인 해석틀을 집약적으로 탐구한 바 있다. 예컨대 언론과 지식 영역의 전문가 집단은, 지난 20여년간 “신세대”, “IT세대”, “N세대”, “G세대”, “W세대”, “G20세대” 등의 각양의 신조어와 특화된 호명의 방식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왔으며, 세대담론이 부상하고 유행하게 되는 계기와 더불어, 특정 담론의 경우 상당한 사회적인 관심과 환기 효과를 생성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세대와 청년층을 탐구하는 일련의 지적 기획은 청년층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인 차이나 다양성, 그리고 이들 주체들이 대면하는 다기한 사회적 조건을 주변화하며, 기성세대와의 대립각이나 세대 간의 대결과 투쟁, 그리고 차별성을 지나치게 ‘극화’하거나 혹은 강조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박재홍, 2009; 전상진, 2010). 부연하면 청년세대라는 문제틀을 탐구하는 기획과 진단들 대부분은, 집합적으로 논할 때, 심화된 경험 연구에 기반을 두거나 분석의 다면성과 동적인 맥락성을 충분히 구현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다수의 세대 관련 사회·지식담론의 생산에서, 청년층 내부에 존재하는 공유되는 코드나 지향성이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집합적으로 동일시되는 규정과 진단의 방식들에 관한 비판과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한운형, 2010).

다소 거칠게 기술하면, 진보 진영은 흔히 청년세대를 변혁과 새로운 정치적인 참여의 주력군으로 설정했으며, 반면에 보수 진영은 청년층이 과거의 ‘민주화세대’와는 상이한 가치와 정치적인 의식, 그리고 시장적 합리주의와 같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삼는 대항담론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소영현, 2012). 바꾸어 말하면 상당수의 세대 관련 담론과 지적 기획들은 청년층의 변화하는 삶과 성향 체계에 관한 밀도 있는 분석이나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호흡이 긴 관찰과 탐구를 추구하기보다는, 흔히 청년세대의 지향점과 특성을 특정한 담론적·정치적인 역학이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기존의 세대담론을 메타 진단으로 접근한 김선기(2014, 2016)의 작업이 날카롭게 짚어내듯이, 이러한 상당수 청년세대 관련 담론들의 구성과 흐름은, 현실의 변화상을 준거하는 일정한 분석력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특정 연령대의 주체들에 대한 거친 의미화나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거나, 이들을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묶어내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청년세대의 특성과 역할을 진단하는 한국사회 내 상당수

작업들은 고정관념을 오히려 재생산해내는 한계와 관성을 발현하기도 하며, 세대 차이나 세대 갈등의 문제를 현실의 동학에서 벗어나서 적지 않게 과장하고, 논의와 진단의 엄정성이 결여된 결과를 부분적으로 도출하기도 했다(전상진, 2010).¹⁾

한편,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확산과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로 결합된 청년층의 사회문화적인 제 특징이나 속성에 주목하는 인문학과 문화연구 영역에서 시도된 일련의 청년세대 관련 연구들은, 주로 ‘스타일의 반란’이나 기성세대와의 현격한 차이를 표출하는 ‘문화적 감수성’이 발휘하는 ‘문화정치학적인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 즉 청년 주체들과 기성 성인 집단과의 차별점이나 취향과 성향(disposition)상의 차이들에 초점을 맞춘 작업들을 제기하면서 – 그간에 매우 큰 가시적인 존재감을 발현하는 담론들의 흐름을 구성한 바 있다(방희경·유수미, 2015; 심광현, 2010; 이기형, 2011; 이동연, 2009). 예컨대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후반 정도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으로 부상했던 ‘신세대’와 ‘참여세대’ 혹은 ‘쫓불세대’나 ‘광장세대’ 혹은 ‘N세대’와 ‘디지털세대’ 등의 용례가 이러한 측면에 연동하는 주요 예시들이라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고길섭, 1999; 이동후, 2009; 주창윤, 2006). 사회학과 인문학 영역 내 다수의 문화연구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던 이 계열의 작업들은, 주로 사례 분석과 담론 분석, 그리고 소수의 현장 연구들을 통해서 집중된 분석과 개념화의 노력을 투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형의 탐구들은 이론들의 측면에서는 특히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새로운 취향과 감성, 그리고 집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청년 주체들의 면모를 ‘하위문화연구’와 ‘수용자연구’ 등의 해석적인 틀을 활용하면서, 청년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과 ‘일탈’이 담아내는 ‘변별적인 특성’과 상징적인 함의를 상세하게 풀어낸 바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집합적으로 ‘스타일의 정치’나 기존의 사회현실에 대한 상징적 저항과 차별화의 일환으로 청년층이 표출하고 생성하는 – 이와 동시에 기성세대의 문화나 가치에는 ‘대항적인’ – 특정한 문화적 기류(cultural milieu)와 상징적인 의례(rituals)에 주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²⁾ 특히 이러한 연구의 지향성들은, 주체의 의지와 능동성에 주목하는 광

1) 이러한 세대 관련 탐구의 주요 방향성이나 한계와 관련하여, 박재홍(2001, 55쪽)은 그간에 한국사회에서 수행된 상당수의 세대 연구를 통해서 진단된 차이나 관찰된 특징이 “출생 이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화에 기인한 것인지(코호트 효과), 현재의 특정한 생애주기 단계나 연령에 기인한 것인지(연령 효과), 혹은 특정한 관찰 시점에 기인한 것인지(기간 효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한국 사회과학 내 세대 관련 연구들이 발현하는 분석적인 모호함이나 개념화의 난점, 그리고 방법론적인 한계를 상세하게 짚어낸 바 있다. 이러한 비판적 지적은 2000년대 중후반에 큰 주목을 받았던 상당수의 ‘문화론’ 중심의 청년세대담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특히 이론적인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계열의 작업들은 영국 문화연구가 수행한 광의의 ‘문화주

의 ‘문화주의적 관점(culturalism)’의 강한 영향 속에서 주로 추구되었고, 청년층의 사회경제적인 특징이나 주체화에 관여하는 구조적 효과와 조건에 관한 다면적인 진단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동연(2004)과 전상진(2010), 이기형(2010), 그리고 한운형(2010) 등이 지적하듯이, 일군의 연구자나 주류 언론에 의해 제기된 세대 관련 진단 작업들은 흔히 세대 간의 차이를 생물학적인 연령에 따른 경직된 이분법으로 범주를 설정하거나, 좋고/나쁨 혹은 새로움 대 구태의연합 등의 상호배제적인 차별성으로 과도하게 의미 구성을 시도하는— 일종의 ‘가치론적 이분법’으로 풀어내는— 관성과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즉, 이러한 문화적인 요인들에 크게 주목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청년을 가장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변이의 가능성을 소유한 세대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다성적 문화정치의 실천 가능성에서 청년문화의 미래를 발견하고자”(소영현, 2012, 396쪽) 시도했지만, 변화하는 정치적인 조건과 양극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문화주의 중심의 관점들이 긴밀한 맥락성과 동태적인 설명력을 결여한 측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중문화연구자인 이택광은 언론 영역 내 전문가들이나 학자 집단이 생산한 청년층과 결부된 상단수 세대담론들의 방향성과 역할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20대를 상대화함으로써, 자기 세대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발화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는 청년세대의 정치성을 논하는 관점들이나 청년 주체들을 규정하는 적지 않은 기획들을 “이데올로기적 포섭 전략”의 한 가지적인 유형으로 정의 내렸으며, 이와 함께 “자신의 규정에 들어오는 20대가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실”을 언론의 보도와 비평담론들이 ‘전술적’으로, 혹은 충분한 경험적인 근거가 결여된 채 제시한 측면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짚어내기도 했다(민중의 소리, 2011, 4, 11).

한편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기존의 세대 관련 연구에 반기를 들고, 문화론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일정한 ‘사회학적 상상력’과 더욱 첨예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발휘되는 특정한 세대담론의 출현도 등장한 바 있다. “88만원세대” 담론이 그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작업이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쟁과 더불어 만만치 않은 공적인 의제를 생성한 88만원세대담론은,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취업의 난맥상, 그리고 경제적

의 계열의 작업들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했다(이기형, 2010 참고). 하지만 이러한 접근 속의 핵심적인 개념들인 ‘상징적 저항’이나 ‘마술적 해결책’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휘하는 함의가 축소 내지 굴절되게 되면서, 청년층이 발현하는 더욱 복잡한 감정구조를 탐구하는 방향으로의 선화가 이루어진 측면도 상당하다(김홍중, 2016).

위기 국면의 심대한 영향이 청년층 내부에서도 불평등하게 반영되는 현실과 같은 첨예한 사회 내 쟁점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특정 세대담론은 앞서 언급한 주제들이 더 이상 탐색적인 징후 분석의 대상을 넘어, 실제적이고 긴급한-이와 동시에 집합적인 숙고와 개입을 요하는- 사회경제적인 현안이자 난제라는 측면에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겨냥하면서, 적지 않은 함의와 각성, 그리고 반향을 촉발한 바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오찬호, 2010). 부연하면 이 특정한 세대담론은 그간에 청년과 세대를 다루는 작업들이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청년 주체들이 대면하고 있는 심각한 생존과 사회적 재생산의 난점을 직시하고, 더 나아가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정치적인 주체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파해냄으로써 상당한 현실 환기와 더불어 개입의 효과를 발휘한 바 있다(강준만, 2010; 엄기호, 2010; 오찬호, 2013, 2015).

88만원세대담론은 특히 다수의 청년 주체들이 대면하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취업 지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팽배한 위기감과 불안감 등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중추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된 “386세대”와 “20대 청년층” 간의 관계와 긴장에 ‘전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기존에 부상한 다수의 세대 관련 담론 작업들과 비교할 때, 이 개입적인 기획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진전되고 ‘도발적인’ 문제의식과 함께, 세대 문제의 사회적 구성과 갈등의 동학을 대안적인 입장에서 돌아보게 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즉, 88만원세대담론은 그간에 문화적인 영역의 확장과 ‘감각과 감수성의 혁명’ 등을 주요한 관찰점으로 설정해온 “신세대”담론이나 2008년 촛불의 등장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사건을 기반으로 부상한 “촛불·광장세대”담론과는 크게 차별화되는 관점과 함께,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불안정 노동의 전면화”, 그리고 학력 자본과 계급적 차이를 매개로 전개되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의 재생산 등이 청년 주체들 대부분을 옥죄며,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단면들이 축적되고 갈등을 첨예화하고 있는 위기적인 상황을 환기시킨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소위 신세대론이나 촛불·광장세대담론과 비교할 때, 88만원세대담론은 특히 다수의 청년 주체들이 학교와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감내하고 있는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안과 동요에 관한 기성세대의 책임과 자성을 강조함으로써, 적지 않은 세대담론들이 채용했던 방향성을 상당히 벗어나는 대안적인 문제의식과 해독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이 책의 저자들은, 청년층이 기성세대가 생성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보다 “이 구조적인 위기를 고작 자기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헤쳐나가고자 하는 문제”를 지적한다(오찬호, 2010, 110쪽). 88만원세대담론은 청년 주체들이 그러한 현실에 순응하거나 경제적 안정과 생존이라는 측면에만 안주하지 말고 “짱돌을 들거나 바리케이드를 치는” 주체적인 운동과 집합적인 참여를 통해서 현 상황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한

다(우석훈, 2011).

이 작업은 취업으로의 지난한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슬한 경쟁과 불안의 시간을 대면해야 하며, 또한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게 될 청년층의 위상을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때로는 금기시되기도 하는- 계급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정면에서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집약적으로 의제화하고 공론화하는 ‘전술적인’ 접근법을 활용한다. 또한 이 세대담론은 일각의 지식담론이나 매체에 의해서 설파되는 ‘무기력하고 정치적 각성이 결여되며, 필요한 노력을 등한시하는’ 청년세대에 관한 질타나 사회 내 관성적인 의미작용에 ‘대항’하는 담론(counter-discourse)을 생성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이 입장은 청년들에게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과 행동의 주체가 되는 능동적 역할과 연대의 필요성을 설득적인 논조로 풀어내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문제의식의 모색과 활성화를 진중하게 권유한 바 있다. 이 지점에서 양돌규(2010, 138쪽)의 표현을 활용하면, 이 세대담론은 “청년실업, 대학-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위기가 만연화된 상태에서 이를 어찌 풀 것인가가 정책적 담론으로 회자된” 중요한 사례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이다. 88만원세대의 문제적인 상황을 분석의 핵심으로 설정하는 이러한 문제제기는, 특정 세대가 주도하는 문화정치적인 역량에 방점을 두어온 기존의 세대 관련 기획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었던 양극화의 현실과 계급의 재생산 같은 매우 심각한 공적인 쟁점들을 탐구하려는 시도이자, 직설적인 톤으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확장된 문제의식에 주력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논한 세대담론의 지형 속에서 상당히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88만원세대담론은 자신들의 성취와 공고한 사회적 위상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안주하고 있는 386세대를 주요한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즉, 의도된 논란을 제기하는 동시에 자성을 요구함으로써- 청년 주체들이 강하게 체감하고 있는 집합적인 불안과 불평등의 근인을 ‘구조적’으로, 그리고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발현하기도 한다. 첨언하면 이 담론은 조밀하게 한국사회의 구조 변동과 주체화의 효과를 탐구하고 있지는 못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도 분석이나 정치경제학적인 진단 혹은 선이 굵은 담론 분석 등을 시도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대신에 이 세대담론은 지금은 사회의 주류로 부상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논하며, 88만원세대에 속하는 청년 주체들에게 연대의 전술적인 필요성과 정치적인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자들이 숙고한 특정한 담론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금 다르게, 이러한 작업이 적지 않은 반향과 논란을 생성하면서, 88만원세대담론에 대한 비판이나 이견이 부상한 바도 있다. 혹자는 이 개념이 “1000유로세대”와 같은 서구사회에서 추출된 특정 개념적 구성물을 역사사회적인 변화의 궤적이 상이한 한국사회에 단

순하게 대입하거나 이식한 일종의 지적인 ‘가공품’이라는 지적과 ‘세대경쟁 환원론’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88만원세대담론이 20대가 아닌 다수의 주체들이 겪고 있는—예컨대 기업에서 밀려나는 중장년층과 극심한 경쟁에 노출된 자영업자들 등—불평등과 빈곤의 재생산이나 생존의 척박한 현실에 대한 확장된 진단을 유기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며, ‘관계론’적 측면의 심화된 문제제기를 충분히 시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비판이 부상하기도 했다(신광영, 2009; 이기형, 2010; 전상진, 2010). 또한 이 담론이 다수 청년층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영하고 당사자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20대 당사자들의 복합적인 반응과 목소리들 혹은 그들이 활동하는 주요 사회적인 영역이나 ‘현장’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부상한 바 있다(오찬호, 2010).³⁾

그럼에도 우석훈과 박권일의 기획이 세대담론의 정치사회적인 역할과 관련된 상당한 논점과 자성을 한국사회 내에서 대안적으로 촉발했다는 점에서, 88만원세대담론의 공적인 의의와 의제화의 기능을 전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세대담론과 특히 청년층을 포함한 특정 세대의 특징과 역할이나 성향 체계를 연구하고 주장하는 담론 작업들은 이해관계나 발화의 주체들에 따라 종종 상이하거나 이질적인 결(textures)을 드러내며, 가치의 투사나 이데올로기 효과의 측면 등에서 특정 부문으로 ‘치우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세대 관련 담론들의 생산은 “386세대론”이나 “88만원세대담론” 등이 예시하듯이, 한국사회 내에 부상하는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이나 위기 상황에 대해 일정한 설명력이나 환기 효과를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선택과 배제의 의미작용이나 피아간에 진영을 구분하는 담론 투쟁에 주력하는 한계를 발현하기도 한다.

세대와 청년이라는 문제들을 연계하는 분석과 숙고된 진단이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읽어내는’ 확립된 관행이자 일정한 학제적인 필요성을 발휘하지만, 현재 청년 주체들이 극심한 경쟁과 안정적인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불안 속에서 집합적으로 표상하는 생존주의의 특질이나 ‘독존(獨存)’과 ‘탈존(脫存)’의 양상들, 그리고 이들이 발현하는 독특한 ‘마음의 풍경’을 다면적으로 탐구하는 작업들은 여전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발현하기도 한다(김홍중, 2016).

2) ‘헬조선 현상’의 부상과 비평담론 및 미디어가 조명하는 청년 주체들의 현실

일견 헬조선의 의미 구성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 단어(hell)와 조선(朝

3) 김선기(2014, 220쪽)는 그간에 등장한 상당수의 (청년)세대 관련 연구들이 “세대의 형성과 세대 차이의 실재성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일단 세대를 구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을 드러낸다고 비판한다.

鮮)이라는- 특히 혼란스러웠고 심대한 난맥상과 슬한 문제점을 보이던 역사적 시기와 상황을- 한국의 과거 명칭을 결합시키는 이 용어는 현재 한국사회가 그만큼 지옥과도 같고, 복합적으로 문제적이며, ‘미개’하다는 메시지를 발산한다. 즉, 상당수의 기성세대들에게는 매우 ‘불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된’ 논지를 확연하게 담아내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풀면, 헬조선이라는 명칭과 명명의 방식은 직설적인 풍자와 한국사회에 관한 매우 부정적인 판단, 그리고 체념과 분노, 아우성, 모멸감, 혐오, 저항적 쾌감 등의 체화된 감정적인 판단이 복잡하게 녹아든 신조어라고 논할 수 있다(조한혜정 외, 2016). 이 용어를 창안하고 자신들의 발화나 담화 속에서 활용하는 청년 주체들의 삶을 고려하면, 이 단어가 매개하는 함의와 상징의 힘은 일련의 의미심장하고 만만치 않은 사회경제적인 쟁점들을 소환한다.

이러한 헬조선의 의미구성과 관련하여, 문화평론가 이재현(2015, 9, 15)은 “헬조선은 젊은 사람들이 현재의 한국사회를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인데, 사회 전반의 모순과 문제점을 나름대로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사회학 연구자인 김학준(2015, 12월)은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매일의 삶과 그 삶을 강제하는 구조를 단 한 마디로 응축한 말”이라고 단적으로 정의한다. 한편, 여성학과 인류학을 전공하는 조한혜정 외(2016)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전통적인 혁명을 통한 체제 변혁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청년 주체들이 만든 기발한 신조어]이자, 단순한 신조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분석적·감응적인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더욱 다면적인 진단과 더불어 진중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수의 헬조선과 관련된 발화들 속에서, 청년실업과 과도한 비정규직의 문제, 기득권층의 특권의식과 부패상, 결혼·보육·출산으로 이어지는 측면에 관한 사회적인 제도와 지원의 부족, 소득과 자산 측면의 불평등과 세습의 재생산, 그리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혐오와 타자들의 대상화 등 여러 단면들이 주기적으로 지목된다. 또한 헬조선을 구현하는 담론들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탈조선’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발화들 속에는, 스스로의 위상을 현실 속에서 표류하는 일종의 ‘난민(refugee)’으로 규정짓는 적지 않은 청년 주체들의 냉소주의와 사회를 바라보는 ‘과격함 마음’과 ‘심정적 난민화’가 녹아 들어 있다(김홍중, 2016; 2015; 김상민 외, 2013). 부연하자면 현 시점에서 청년 주체들은 ‘헬조선’ 현상을 추동하는 과도한 경쟁과 취업의 어려움, 심화되는 양극화, 그리고 이들 주체들에 관한 ‘전향적이지 못한’ 기성세대의 시선 속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냉소와 좌절,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주요 발화자들이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장에서 논했던 일련의 세대담론들이 주로 매체나 전문가 집단의 진단과 관점

에 의해서 청년층의 ‘외부’에서 주로 생산되었다면, 헬조선 담론은 당사자들 스스로가 창안하고 회람시키며, 사회적인 반향과 논쟁을 불러왔다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인다. 한편, 헬조선과 관련된 일련의 의미작용 속에서 청년층이라는 특정한 세대 집단이 직면하는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특히 이들 세대 구성원들의 열악한 경제적인 위치가 강조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 담론은 앞서 언급한 88만원세대담론이 주목한 문제적 상황과 맥을 이어가는 단면을 확연하게 포함한다. 이와 동시에 헬조선 담론 속에서 청년 주체들이 대면하는 현실은 더 악화되고 있으며, 이들 주체들은 특히 사회 내 팽배한 ‘기득권층의 일그러진 행태’나 이른바 ‘갑질’과 ‘특권’에 대해 더욱 강한 적대감과 냉소, 그리고 좌절감을 발현하기도 한다.⁴⁾

다소 단적으로 말할 때, 헬조선 담론 속의 대한민국은 이미 변화와 개선의 동력을 크게 상실한-이와 동시에 이를 풀어낼 자성이나 혹은 집합적인 대안과 행동이 부재하는- ‘망한민국’으로 상징적인 측면에서 정의되고 희화된다. 또한 ‘흙수저인 청년, 금수저인 청년’ 등의 구분법이 시사해주듯이 ‘헬조선’ 담론의 내부에서 청년 주체들 간에 공유되지 않는 심대한 사회경제적인 차이점이나, 쉽게 비판하기 어려운 ‘승자독식’으로 압축되는 사회 상층의 계급적인 분화의 단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차별점이 있다면 앞서 논한 88만원세대담론의 경우 담론 효과가 공적으로 확장되면서 매체와 비평가 혹은 전문가 집단의 개입과 진단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면, 헬조선 현상의 경우 담론작용의 주요 무대는 온라인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층들의 생활 세계, 그리고 매체 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측면이다. 한편, 헬조선 현상을 비판적으로 해독하거나 이 담론의 특성을 다양한 학술적인 진단으로 탐색하는 작업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못하며, 다수의 학자들은 이 현상의 존재에 대해 최소한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분석의 측면에서는 개입과 실행을 주저하는 면모를 보인다.

헬조선 현상을 키워드로 상정하는 연구자들의 분석은 아직 지식 생산의 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점차 심도 있는 분석이나 숙고된 노력을 반영하는 작업들이 비평 영역을 중심으로 그간에 축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박권일(2016)은 ‘헬조선’, ‘노오력’, ‘죽창’, ‘지옥불만도’ 등을, 다소 과격하지만 한국사회의 부조리함과 불합리를 압축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문제적인-이와 동시에 쉽게 유행하는 표제어 정

4) 보수언론의 경우에도 헬조선 관련 보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판적 문제의식을 일부 표출하기도 한다.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국가”, “젊은이들의 아픔을 청춘으로 치부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 해도 개인 노력이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조선일보, 2015, 8, 22).

도로 간과될 수 없는- 표현들이라고 명명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청년층이 표출하는 혐오와 구조화된 감정의 ‘이면’과 맥락성을 ‘집요하게’ 읽어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권일(2016)은 그간에 여러 매체에서 등장한 헬조선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입장을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한다. (1) ‘외부로 눈을 돌리면 한국보다 더한 지옥도 많다. 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아닌 너 자신이다’, (2) ‘젊은이들이 표출하는 불만은 정당하다. 헬조선으로 호명되는 현실의 지옥을 바꾸려면 정치적인 문제의식을 활성화하고 투표하라’, (3) ‘지옥인 건 맞지만, 특정한 발화의 전략이나 담론작용만으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더 동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반응하고 대항하라’, 박권일은 이렇듯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대변되는- 그와 동시에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갈리기도 하는- 기성세대의 응답을 반박하면서, 청년세대들이 분노하는 방식과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진지하게 숙고하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표출하는 관점의 한계나 성찰의 부족을 예리하게 파고든다. 박권일은 불안한 현실에 대해 분노와 자조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집단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위축되어 있으며 변화의 가능성 자체를 능동적으로 모색하지 않는 청년들의 입장을 이들 주체들이 발현하는 독특한 감정구조를 중심으로 풀어내며, 그와 동시에 기성세대의 구성원들이 이 측면에 관해 충분히 자성적인 진단과 고민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다소 원론적이긴 하지만 세대의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책임의 인지와 어떤 상황에서 청년층들이 헬조선이라는 ‘도발적인’, 그리고 급진적인 인식을 제기하게 되는지를 진중하게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더 집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헬조선과 관련된 학술 작업은 지금까지 상당히 미미한 반면에, 매체 비평이나 기고를 통한 비평담론은 적지 않게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관련 작업을 제공한 일군의 비평가들은 언론이 헬조선 관련 주요 쟁점과 특성을 대중에게 알리며 의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상당 부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 탐구와 진단에 있어서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상당수의 언론이 헬조선 현상이 단지 ‘한국의 어려운 경제·사회·정치 상황에서 청년들의 분노와 불만이 과격하게 나타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론의 심화된 진단이 결여된 관점과 숙고되지 못한 재현작용에 관해 더 치열한 비판점과 대항적인 해독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술연구자로 헬조선 현상에 관하여 드물게 조직적인 진단을 선도한 조한혜정 외(2016)의 작업인 〈노오력의 배신〉은 이러한 입장을 한층 더 긴 호흡과 분화된 문제의식으로 접근한다.⁵⁾ 지금까지 등장한 다수의 비평담론들이 헬조선 현상이 부상하게 된 원인을 왜곡된 사회구조의 거시적 효과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탐색하며, 특히 일종의 ‘반영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헬조선이라는 독특한 호명의 방식이 부상한 배경과 동학을 ‘느슨하게’ 읽어낸다면, 조한혜정 등은 헬조선의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부조리함을 몸으로 부딪치며 고뇌하는 청년들의 활동상과 다양한 생존법, 그리고 대응의 방식에 집중한다. 이 기획은 청년 주체들이 대면하는 험난한 취업과 주거 문제, 그리고 대안으로서 이주와 이민이나 유학과 탈출 등의 사안을 상세한 사례 분석과 좀 더 ‘대화지향적인’ 관찰자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며, 이들 주체들 속에 혼재된 다양한 차이와 입장, 그리고 생존의 특화된 방식을 당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와 조명된 사안에 관한 세밀한 해제를 통해서 풀어낸다. 일정한 현실감과 공동 성찰의 노력이 감지되는 접근법을 발현하는 이 작업은, 청년층이 대면하는 질곡을 “사회가 노답이라며 조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회를 바꾸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85쪽)라는 단적인 시사점을 통해서, 이들이 처한 현 상황의 특성과 정치적인 환경의 이중성을 예리하게 짚어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헬조선 현상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와 동시에 적지 않은 사회적 관심과 이견을 견인하면서, 청년세대의 현실과 사회적 위상을 짚어내는 공적 담론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측면을 연구자들이 계속 방기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헬조선 현상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와 담론의 ‘세력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 내 지식인층이나 연구자들이 아닌 언론이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온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청년층이 주도해온 이 현상에 관해 결코 적지 않은 보도와 진단을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2015년 연말과 2016년 초를 맞아, ‘청년’을 화두로 한 연작 기사들과 특집을 제공한 바도 있다.

일례로 <경향신문>은 창간 70주년 특집으로 ‘청년 미래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들부들 청년’ 기획 시리즈를 제공했다. 2015년 11월에 시작해서 2016년 3월에 완료된 한국사회 내 청년들의 표류하는 삶을 진단한 이 대형 기획은 주로 젊은 기자들로 구성된 분석팀이 1,500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초점집단면접을 활용하면서, 이들이 준 일련의 체험과 목소리를 17편의 시리즈로 엮어낸 매우 복합적이며 조밀한 작업이다. 이 기획은 헬조선이라는 명명법의 부상이나 현실 환기의 배경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희망 없는 교육, 국가의 무능과 미개한 통치성, 기업의 노동착취와 연고주의(patrimonial capitalism)의 극단을 대변하는 일종의 절망의 수사학이라는” 집합적인, 그리고 공공적인 측면을

5) 이 책은 헬조선 현상에 관한 대중서로, 지식생산의 주체들이 이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최초의 현실 분석이자 구체성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집합적인 노력을 담아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기성의 학자들과 청년 집단에 속하는 연구자들이 1년여에 걸친 세미나와 심화된 토론의 결과, 그리고 청년층을 당사자로 접근하는 일련의 인터뷰와 사례 연구를 엮어낸 책이다.

강조한다.

이 연작 보도는 최근 들어 주목 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과 의미망 분석, 그리고 텍스트 분석 등을 보완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헬조선에 관해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 기성의 독자들에게 상당히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이 현상을 둘러싼 크고 작은 맥락성에 관한 진전된 설명과 심화된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이 기획은 다수가 ‘무한 경쟁’이라는 헬조선의 상황을 살아가는 청년 주체들의 ‘당사자’로서의 복합적인 반응과, 이들이 ‘고군분투’하는 상황 속에서 표출하는 절절한 욕성과 좌절감을 ‘청년층의 언어’로 진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전한다.

한편, 〈시사인〉은 지난 12월에 ‘헬조선 다시 읽기’를 주제로, 청년담론을 ‘탈조선, ~충, 노오력, 노답’이라는 4가지 주요 키워드로 정리·분석하면서, 청년층 내부에서 발화되는 언어와 화법에 주목하면서 헬조선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분석했다. 현 상황을 예리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풀어내는 소장 연구자와 비평가들이 참여한 이 연작 또한 분석 대상인 청년층과 거리를 두면서 기자들이 제기하는 관찰과 진단을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하기보다는, 당사자로서 청년 주체들이 자신들을 옥죄며 낙망하게 만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며 판단하는지의 측면들을 개입적인 톤(tone)과 비평적인 관점으로 탐구한다. 이 진단 작업은 청년층이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와 배경을 예리하게 짚어내면서, 관련 외국 사례들과의 비교와 개별 주체들의 미시적인 궤적을 전하기도 한다. 또한 점차 ‘신계급사회’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청년 주체들의 분투기와 ‘소실되는 희망’을 감각적으로 짚어내기도 한다.

〈한겨레〉 또한 20대 청년 21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기반으로, ‘더불어 행복한 세상-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이라는 제목의 기획 연재를 제시했으며, 청년 주체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상세한 사례 진단의 방식으로 접근한 바 있다. 이 작업은 일련의 심층 인터뷰를 자원으로, 교육과 취업,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의 주요 영역에서 이들 주체들이 대면하는 삶의 무게감과, 희망보다는 좌절과 불안감이 짙게 배어든 사회적 궤적을 구체적으로 예증하는 사례들을 조명한다. 이 연작 속에서, 자신들의 부모세대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청년층의 고단하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들이 각 주체들의 체화된 경험들과 더불어 강한 정서적인 표출을 통해서 땀땀이 등장한다. 이 기획 연작의 첫 번째 기사 속에 “청년세대의 ‘희망 컨베이어 벨트’가 끊어지고 있다.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전 세대들이 당연시했던 ‘소박한 삶의 궤적’은 이제 위태롭게 이어지거나 어느 순간 끊어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놓였다”(박승현·황보연·최우리, 2015, 12, 31)와 같은 현실에 대한 환기 효과가 상당한 문장들이 등장하면서,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일보〉는 2016년 초에 인터랙티브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로, ‘한중일 청년 리포트’를 선보였다. 이 기사는 상당한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삼국의 청년층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상호·비교하는 방식으로 풀어낸 바 있다. 이 기획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결혼’, ‘관계’ 등 네 개의 주제 영역에 걸쳐서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의 측면을, 섭외된 38명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총 12편의 이야기로 전한다. 이 특집 기획 역시 앞서 언급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등이 구성한 연작과 흡사하게, 청년층 내 다양한 주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취업의 불안과 지속되는 집합적인 위기감, 상생의 어려움과 관계의 결핍, 결혼을 꿈꾸기에는 경제적으로 ‘비루한’ 현실, 그리고 고시원과 협소한 원룸이나 ‘리빙텔’을 어쩔 수 없이 유랑하는 젊은이들의 고달픈 사연들이 상당한 현실감과 공명을 발휘하면서 전개된다.

언론연구자 장은미(2016)는 이러한 주로 진보언론이 주도한 일련의 헬조선 관련 기획들에 관해, “〈시사인〉,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모두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 목소리의 다양한 층위들을 기사로 제시하고 있는 지점들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청년들이 진정 힘들고 아파하는 지점들이 무엇인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45쪽)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금 다르게 앞서 논한 연작들의 특징을 논하면, 기존의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삶을 소재주의적인 초점이 강한 이른바 ‘청년팔이’식 기사의 구성으로 재현하거나, 청년세대의 무기력이나 냉소와 정치적 각성과 참여의 상관관계 등을 논하는 더 협소하거나-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특정한 정치적인 시각이나 의도성을 강조하는 기획물의 생산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사회학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기획들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기존의 취재와 보도의 관행을 넘어서, 심층 면접이나 난상토론 등의 방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문체와 진단의 방식에서도 더 심화된 관찰적인 시각과 유연한 톤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적지 않다.

언론은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특정 주제를 의미화하고, 관련 담론의 생산을 통해서 무시 못 할 ‘공론화’와 더불어 ‘세력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내 영향력이 상당한 행위자로 기능한다. 물론 언론이 제공한 헬조선 관련 기사와 텍스트들이 학술작업과 비교할 때 충분히 심화되거나 조직적인 진단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주목하고 생산해내는 현실 진단과 담론작용이 공중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더 나아가 헬조선 현상에 관한 지식담론과 학술 작업의 부재를 고려할 때, 헬조선에 관한 언론의 재현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은 상당한 의의와 적실성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헬

조선이 제기하는 사회적으로 불거진 일련의 문제점을 특집과 기고문, 그리고 비평담론 등으로 조명하는 언론의 활동상은, 현재 학계가 충분히 숙고된 문제의식과 치밀한 진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적 공백’을 채우는 중요한 역할과 더불어 일련의 분석적인 단서들을 제공한다고도 판단된다.

3. 연구방법

이 작업은 질적 연구에 속하는 텍스트 분석을 주된 분석의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통상적으로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활용되는 텍스트 분석은, 주요 현안이나 공적 이슈를 재현하며 이러한 실행 속에서 특정한 ‘공론화’와 ‘의제화’, 그리고 ‘세력화’를 도모하는 언론이 생산한 주요 기사들의 장르적인 갈래, 내러티브적인 특성, 발현되는 특정한 논리나 관점과 가치작용, 그리고 사회적 상징성의 함의와 ‘신화작용’ 등을 세밀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방법론이다(Lindlof & Taylor, 2010; McKee, 2003). 다소 단적으로 표현하면, 미디어와 저널리즘의 실천을 탐구하는 텍스트 분석은, 언론이 종종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사안의 재현을 둘러싼 ‘의미들의 투쟁(the struggles over meaning)’이나 대립상과 각축의 단면들, 각 매체들 간의 특정 사안의 의미화를 둘러싼 차별성과 설득력, 그리고 의제의 생산을 상호 비교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진은 헬조선이라는 기성세대의 대부분 독자들에게 상당히 ‘생경한’ 사회적 발화의 특징과 부상의 배경을 언론이 장기간에 걸친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조명하고 전달하며, 더 나아가서 특정한 관점과 문제의식을 투사하는지를 수집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진단하였다. 부연하자면 이 연구는 정파성을 달리하는 각 언론사들이 생산한 기사와 연작, 그리고 기고문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텍스트들에 관한 상세한 해독을 기반으로, 언론이 헬조선 현상을 조명하면서 어떤 특징과 더불어 집합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지에 관한 조밀한 관찰과 매체간의 상호비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맥락화된 진단을 수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진은 한국사회 내에서 대표적인 주요 종합일간지들 중에서 정파성이 ‘보수’와 ‘진보’로 차별화되는 4개의 매체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조명하는 기사들을 일차적으로 수집하고, 그중에서도 헬조선 현상과 주제적인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관련성과 함의가 있다고 판단한 기사들을 추려내어 핵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헬조선을 논하는 기사와 연작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년여의 기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더 나아가 신문 기사라는 저널리즘의 관행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의 장르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분석과 진단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사 양식 및 구성의 차이점, 심화된 진단이나 논쟁적인 관찰점의 개진 여부, 그리고 진전된 논의를 제시하는 시리즈물이나 특집 등의 보다 조직적인 기획이 추구되었는지 등에 따라서, 광의의 해설 및 정보 제공형 기사, 특집 및 연작 기사, 기고문과 비평문 등 세 가지의 핵심적인 유목을 설정하고 수집된 기사들을 분류·해독하였다.

먼저 해설식 기사들의 경우는 특정한 정치적인 가치나 과도하게 논쟁적인 의견을 상대적으로 배제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그와 동시에 헬조선이라는 기성세대에게는 생경한 현상과 관련된 주요 팩트와 정의, 그리고 해제 및 사회적 환기작용 등이 발현되는 보도 기사들에 주목하였다. 요컨대 분석을 수행하면서 특히 헬조선이라는 특정 용어가 들어가거나 거론되지만, 충분한 함의점이나 특징을 제시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보도들보다는, 헬조선 현상에 관한 일정한 정의 내리기와 해독,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와 진단적인 관점이 투영된 기사들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⁶⁾ 예를 들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의 연원이나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활용되는 특정한 배경과 맥락성을 짚어내거나, 상대적으로 좁게 범주와 함의를 설정한 기사들은 ‘정보 제공형’ 및 ‘설명형’의 기사로 분류하였으며, 논쟁과 쟁점을 가져온 유명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 집단의 ‘헬조선’ 관련 발언 내용을 포함하거나, 청년층의 현실과 관련된 특정 현안이나 사회적인 쟁점과 연계시킨 기사는 ‘사건과 이슈 관련 기사’로 정리하였다. 예컨대 특정 매체가 보도한 헬조선 현상 속에서, 청년층이 대면하는 주요 정책적·공적 현안이나 특정 이슈들과 연관된 청년 단체들의 단체 행동이나 발언들, 그리고 청년 주체들의 정치참여 관련 사안을 풀어내는 보도들은 사건과 이슈 관련 기사로 분류하였다.

한편, 특집 및 시리즈 기사는 앞서 정의한 광의의 해설 중심 기사들과 비교할 때, 헬조선 현상이나 청년세대와 관련된 특정 쟁점과 사안에 관해 상대적으로 복합적인 진단 방식과 일련의 관찰점과 관점이 체계적으로 발현되는— 즉 ‘왜’ 혹은 ‘어떻게’와 같은 문제의식이 심화된 방식으로 등장하는— 기사들을 선정하였다. 특집 및 연작 기사의 경우, 진보매체의 지면에서 헬조선을 키워드로 한 기사의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다양한 직업군과

6) 광의의 해설형 기사들 속에는 대부분이 원고지 10매를 넘지 않았다. 또한 이들 기사들 속에는 온라인과 비평담론이 제기한 헬조선 현상의 특징이나 정의를 주로 짧게 정리하거나 언급하는 유형들이 적지 않았다. 한편 언론 지면의 기고문이나 비평문과 비교할 때, 해설식 기사에서는 작성자의 강한 주관적 비판이나 공세적인 표현이나 화법 등이,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 크게 발현되지 않았다.

사회 환경적인 특징을 보이는 20~30대 청년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와 현장 탐방형 작업, 그리고 다수의 사례 진단을 담은 기사들이 주종을 차지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독립적인 특집 및 연작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던 관계로, <신동아>의 “좌절 세대”와 “중산층”과 <중앙일보>의 “청춘리포트”, 그리고 보완적으로 <한국일보>의 “한중일 청년리포트”를 포함시켜 분석과 참고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루는 사안에 관하여 언론이 제공하는 팩트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정리된 정보의 전달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유형의 기사와는 달리, 기고문과 비평문은 더 복합적인 관점이나 해설과 함께, 정파적인 가치와 논지가 개입된 주장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고 특정 의제를 제시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특히 기명 칼럼과 사설은 개별 신문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지명도가 있는 언론인이나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특정한 정파적 입장을 반영하는 성격의 글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충고·단언·계몽형’, ‘공감·위로형’, 그리고 ‘심화된 담론작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보수매체와 진보매체가 헬조선 현상에 관해 제시한 진단과 주장의 공유되는 측면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파성을 달리하는 언론의 집합적인 보도의 방식이 어떤 차별적인 의미작용을 발휘하는지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주목하였다.

자료의 1차 수집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사통합검색 서비스(KINDS)를 이용했으며, 각 언론사의 기사 유형별 개수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와 검색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2차 작업으로, 일간지 지면의 헬조선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스크랩하며 모니터링하는 데에 유용한 서비스인 ‘아이서퍼(eyesurfer.com)’를 활용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과 정리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간지와 닷컴에서 중복되는 기사들이나, 헬조선 현상과 관련하여 지엽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들은 제외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헬조선 관련 키워드와 주제를 논하는 기사들의 매체별 보도량은 <그림 1>과 <표 1>에서 제시했으며, 유형별 기사들의 생산은 <표 2>에 정리하였다.⁷⁾ 수집 결과,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헬조선’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포함하여 생산된 기사의 개수는 <경향신문>이 185개, <한겨레> 144개, <조선일보> 42개, 그리고 <동아일보>가 37개

7) <표 3>의 경우, <중앙일보>의 기획이 조사 기간이 아닌 2014년 4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기에, 본문에서 설명과 진단은 제시했지만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1. 헬조선 관련 기사 및 기고문 월별 보도량

	2015년 7월	2015년 8월	2015년 9월	2015년 10월	2015년 11월	2015년 12월	2016년 1월	2016년 2월	2016년 3월	2016년 4월	2016년 5월	2016년 6월	2016년 7월	2016년 8월	합계
경향	0	9	16	14	13	13	37	28	37	1	2	3	2	10	185
동아	1	2	4	4	1	6	6	1	3	2	0	1	0	6	37
조선	0	2	1	4	5	7	7	2	2	0	1	1	4	6	42
한겨레	0	5	5	11	18	9	45*	16*	9	5	4	7	5	5	144
합계	1	18	26	33	37	35	95	47	51	8	7	12	11	27	408

그림 1. 헬조선 관련 기사 및 기고문 월별 보도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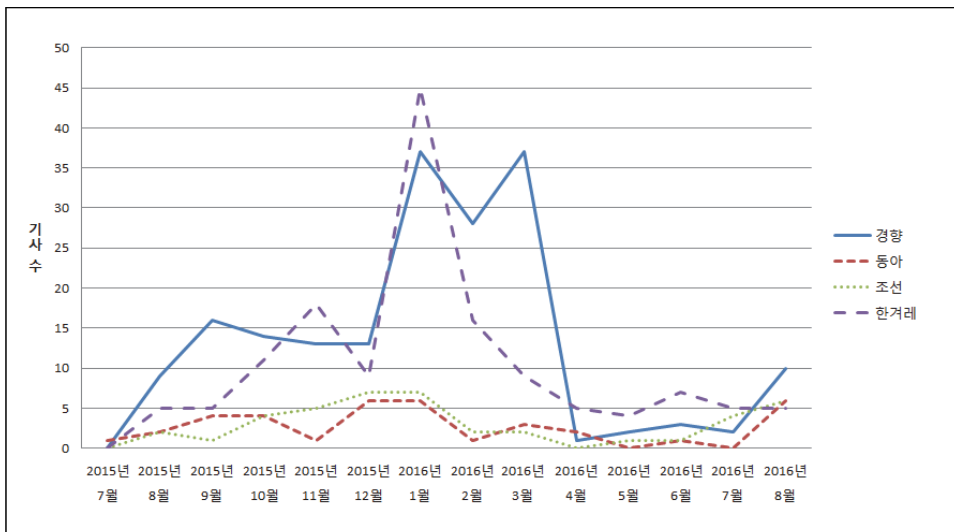


표 2. 헬조선 관련 기사 유형별 비교

언론사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합계
총 기사 수		185	37	42	144	408
보도의 유형	정보 제공형과 해설식	13	9	4	6	32
	사건·이슈	7	1	3	13	24
	칼럼/사설	76	27	35	76	214
	기획연작	88	0	0	40	128
	기타	1	0	0	9	10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론에서 ‘헬조선’ 관련 기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 12월 14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인 “조센징이라 센송하무니다”…부조리 한국사회, 냉소하는 젊은이들”이라는 기사에서부터다. 이후 헬조선 현상과 관련된 기사는 2015년 7월까지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동아일보>의 기사(조동주, 2015, 7, 10)를 시발점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지면에 실리기 시작했다. <표 1>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헬조선’ 관련 보도는 2015년 연말과 2016년 연초에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3월 무렵까지 꾸준히 언급되었다. 2016년 1월의 경우, 한 해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청년 관련 특집이나 관련 기사들이 다수의 매체들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가장 많은 기사들이 등장한 현상은 일부 매체들이 주도한 특집과 연작물에 기인한 결과로도 판단된다. 2015년 10월에서 12월에 이르는 하반기의 경우, 대표적인 유행어이자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키워드인 헬조선 현상과 담론에 관한 조명이 특히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구된 결과로 추정된다.

이후 연구의 후반기에 가까울수록, 즉 2016년 8월을 제외하고는, 헬조선과 관련된 보도는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헬조선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관심의 분산이나, 혹은 <경향신문>·<한겨레>의 특집 기사 이후에 이러한 대형 기획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2016년 8월의 경우는,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내용 중에 헬조선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강한 톤으로 이 현상을 비판한 발언이 ‘도화선’이 되어 적지 않은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결과로 추정된다.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자기비하와 비판,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라는 비난과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장에서부터 한층 상세한 분석 결과와 진단을 각 언론사별 기사 속에서 발췌한 핵심적인 인용문들을 중심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4. 연구결과

2010년 1월부터 인터넷상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주요 매체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 7월 무렵이다. 참고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블로그와 트위터에서의 헬조선 언급은 2014년 5,277건에서 2015년 9월 초까지 10만 1700건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현혜란, 2015, 9, 18).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헬조선 관련 사안들은 이후 각종 매체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유명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 용어를 언급하는 상황도 부상하게 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이 현상에 관해 적지 않은 비평문과 기고문들이 등장할 정도로, 헬조선이라는 다면적으로 함축적인 표현은 한국사회 속 청년들의 현실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연구진은 ‘헬조선’이라는 키워드와 현상을 언론이 재현하는 방식과 관점의 차이를 조명하기 위해서 보수 성향의 매체와 진보 성향의 일간지를—〈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경향신문〉과 〈한겨레〉— 각각 2개씩 선정하여 헬조선과 관련된 일련의 기사들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8월 15일까지 분석 대상이 된 이들 언론의 지면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조명된 정보 제공형 및 해설 형식의 기사들, 특집 및 연작 기사들, 그리고 기고문·비평문들을 찾아 보도와 재현 측면의 특징과 함의점에 관한 진단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표출된 문제의식이나 재현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주요 청년 문제나 청년층의 현실과 관련된 특집 기사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보수 성향의 매체로 분류되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특집 기사나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리즈물이 따로 없었기에, 〈신동아〉와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일보〉가 제공한 헬조선 관련 특집을 추가로 분석했다.⁸⁾

1) 광의의 정보 제공형 및 해설과 분석을 담은 기사들의 특징과 함의

통상적으로 해설형의 기사는 특정 사안이나 사건, 그리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팩트의 구현과 전달, 그리고 조명되는 사안에 대한 일정한 분석이나 해제 등을 포함한다(고영철, 2015; 남재일, 2010). 헬조선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고 일정한 조명이 이루어진 각 매체가 제공한 주요 기사들은 내용상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생성된 신조어이자 청년층의 일상적인 담화 속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헬조선이라는 명명법의 연원과 의미, 그리고 등장 배경이나 맥락적인 측면 등을 주로 기성의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정보 제공형의 기사들이다. 다른 유형은 사회·경제·문화 측면에서 관찰되는

8) 〈한국일보〉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은 중도에서 진보로 판단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헬조선 현상을 다룬 기획의 특성이나 방향성을 다른 기획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참고의 자료로 삼았다. 한편, 비평문이라는 용어는 주로 진보언론에 실린 헬조선 관련 기고문들 중에서, 학자나 비평가 집단 등이 개진한 문제의식과 관찰, 그리고 서술의 방식이 통상적인 기고문의 내용이나 논조에 비해 복합적이며 일정한 심도와 차별성을 발현하는 진단적인 글쓰기를 통칭하기 위해서 활용하였다.

청년층이 대면하는 현실이나 청년 주체들의 사회 참여 등과 관련된 특정 이슈 혹은 사안과 사건의 보도에서 이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며, 그와 동시에 지역적인 용례나 에피소드 이상의 논의와 함의를 발하는 기사들이다. 후자의 경우, 특정 청년 단체나 청년층이 공적으로 이슈화를 시도하거나, 사회운동이나 정치 참여 등의 측면에서 헬조선과 관련된 조명과 문제의식을 발현하는 기사들이 이에 해당한다.⁹⁾

온라인 영역에서 주로 회자되던 헬조선에 언론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 7~8월 무렵으로 파악된다. <동아일보>가 “2030이 부르는 또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신조어에 관해 소개한 작업을 시작으로, 헬조선 현상의 특징과 함의를 풀이하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한 바 있다. 예컨대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는 이 신조어가 부상하게 된 배경과 상징성에 대해 일정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기사는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는” 젊은이들의 불안하고 경쟁에 내몰리는 삶에 관해 묘사하면서,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부상의 배경과 더불어 청년층이 처한 현실의 단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요즘 젊은이가 살아가기에 점점 척박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대 때 명문대에 가려는 입시전쟁, 20대 때 대기업에 가려는 취업전쟁, 30대 때 혼처를 찾으려는 결혼경쟁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쳐 살아남아도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2015, 7, 10)

<동아일보>에 이어 <조선일보> 또한 온라인 영역을 넘어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헬조선 현상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해설과 이 현상의 현재적인 특성이나 환기 효과를 부분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8월 22일 자 “망한민국·헬조선…우리 청년들은 왜,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부르게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자.

요즘 우리 사회 일부 젊은이들은 단순한 반항이나 불만의 수준을 넘어 사회나 국가, 기성세대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젊은 시절 한때의 치기로 보기에는 그 뿌리가 깊고 정도가 심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 헬조선 정서의 확산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별 따기만큼이나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9) 분석의 대상인 된 일간지들의 지면에 등장하는 광의의 정보 제공형, 그리고 해설형 기사들의 내용 중 일부는 칼럼에서 개진되는 진단이나 비평과 일부 겹치기도 한다. 그와 동시에 이 기사들의 상당수는 기명 칼럼이나 비평문과 비교할 때, 강한 톤이나 논쟁적인 관점의 개진에 있어 일정한 ‘거리두기’를 보여준다.

… 필사적으로 애써도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젊은이들은 인생의 목표를 향한 달리기에서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때문에 ‘헬조선 세대’들은 ‘노력’이라는 단어를 혐오한다. (조선일보, 2015, 8, 22)

〈조선일보〉는 또한 청년층의 취업난과 비정규직화가 전개되는 양상을 청년실업률 같은 통계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극심한 취업난과 취업 이후에도 계속되는 치열한 경쟁이 청년층을 압박하는 측면을 풀어낸다. 높은 경제 성장률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은 앞선 세대와 달리,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계층 상승을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으로부터 청년층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혐오하게 되고, 더 나아가 ‘탈조선’이라는 인식을 발화하게 되는 감정적 맥락을 청년 주체들과의 간략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공한다. 이러한 전개는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이른바 ‘수저론(論)’이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룬다”(조선일보, 2015, 8, 22)라는 진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겨레〉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31일자 기사 “‘헬조선’이 풍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단어가 발현하는 현실비판의 배경과 상징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풀어낸다.

헬조선이 풍자하는 실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헬한국’이 아닌 ‘헬조선’이라 이름 붙인 까닭도, 근대화 이전과 지금의 한국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인식 때문일 게다. 이곳 게시판에 유독 ‘미개하다’, ‘후지다’라는 표현이 많은 걸 보면, 이들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상식과 합리성에 가깝다. 상식과 정상을 말하는 정치인들은 헬조선이 애국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한겨레, 2015, 8, 31)

앞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기사가 헬조선 현상을 “한국 혐오 신드롬” 또는 “냉소적인 국가관”으로 명명하면서, OECD 통계나 청년실업률 통계 등으로 제시되는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현실을 헬조선 현상이 등장한 배경으로 설명한다면, 〈한겨레〉는 이 현상이 부당한 맥락을 이들 보수매체에 비해 더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이념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역사적 과정 등을 중심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상이한 결을 읽어낼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인식 속에 함축된 바를 풀어내면, 〈한겨레〉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이 해결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사회적 모순과 거시적인 제도의 난맥상과 저발전이 ‘헬조선’ 현상이 불거지게 된 심층적인 원인이 있다는 측면을 설파한다.

〈경향신문〉 또한 ‘미개’라는 키워드 속에 압축된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한겨레〉와 비슷한 입장을 제시한다. 2015년 9월 4일자 기사 “헬조선에 태어나 노오오오오오오력이 필요해”는 헬조선과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분석하며 이 상징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맥락성을 설명한다. 특히 토요일판 신문의 ‘커버스토리’로 꾸며진 일련의 관련 기사들은 다른 매체들과 지면의 구성과 전체 보도 분량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구성의 측면에서도 트위터나 일간베스트 등의 온라인 게시물을 수집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한 리서치 회사의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청년 주체들과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재구성한 ‘징후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는 등 다른 매체들과 비교할 때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헬조선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헬조선’은 정확히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을까. 아르스프락시아가 지난 1~8월 인터넷 게시물(트위터·일간베스트 저장소)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헬조선’은 ‘미개’, ‘탈출’이란 단어와 함께 쓰이는 빈도가 높았다.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평가받는 트위터·일베를 가리지 않고 “헬조선은 역시 미개해,” “헬조선을 탈출해야 해”라는 두 문장이 가장 널리 쓰인다는 의미다. (경향신문, 2015, 9, 4)

SNS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나 부상하는 트렌드를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 주목하는 기사들은, 종종 청년층이나 온라인 하위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이해와 접점을 갖고 있는 젊은 나이대의 기자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본 연구에서 정보 제공형과 해설형 기사로 분류한 헬조선 현상에 관한 ‘탐색적인’ 작업들도 대체로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기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수매체일지라도, 매체의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 혹은 지속적으로 세력화하고자 하는 정책담론 등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청년층의 입장에 다가가며 심정적인 공감을 일부 발현하는 기사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동아일보〉의 기사의 말미에서는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젊은이들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냉소하는 반응에 마냥 혼계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설파하면서, 이 글의 하단에서 분석할 보수언론의 지면에 등장하는 기고문들이 드러내는 논조나 입장과는

10) 이러한 추정은 기자 집단과의 심층 면접이나 생산자연구 등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상당하다. 연구팀의 일원이 〈경향신문〉의 청년 특집에 참여했던 한 기사를 알고 있었기에, 그를 통해서 이러한 단면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의 “청춘리포트”의 경우에도,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팀을 운용한 바 있다.

일정 부분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예컨대 “사람이라면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청년들이 대면하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관해 일정한 공감이나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기사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다.

애국가 4절에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 하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전에는 미우나 고우나 한국 땅에 살아야 했지만 이젠 언제든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국민을 국가에 잡아두는 게 국가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에게 “너도 한국인이다”,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고 훈계하기엔 세계가 너무 넓습니다. (동아일보, 2015, 7, 10)

이와 함께 헬조선이라는 ‘문제적’ 현상을 풀어내는 보수언론의 기사들이 구조적이고 매력적인 접근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일간지들은 기존의 청년세대 담론이나 청년세대의 상황을 논하는 함축적인 표현들을 배치하면서, 헬조선 현상이 상징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일부 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보수언론이 제공한 일부 기사는 ‘잉여’라고 자칭하며,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적 실패에 대하여 개인적인 원인을 찾는 청년층의 자조와 자기비하가 국가나 사회구조에 대한 분노와 혐오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뀌어 온라인 영역에서 주로 일종의 언어적 놀이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힐링담론’이나 ‘88만원세대론’과 연결하며 간략히 풀이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은 온라인 하위문화에 대한 관찰과 청년세대 관련 담론의 부상과 변천에 대한 이해가 일정 부분 반영된 진단으로 판단되며, 이는 진보매체에서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진단이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에는 차이 또한 관찰된다. 형식과 구성의 측면에서 진보매체의 경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헬조선 현상을 보도하며, 사례별로 더 세밀하게 개진된 관찰점과 더불어, 청년담론 또는 청년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면서 이 현상의 복합적인 함의를 풀어내고자 했다는 특징이 관찰된다.¹¹⁾ 보수매체의 경우 소수의 기사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추가적인 사례 취재나 대안적인 취재 방식의 도입, 그리고 피쳐 기사와의 병렬 배치 등을 통한 복합적인 지면 구성 등은 크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11) 〈조선일보〉 또한 청년 주체들을 취재하지만, 로스쿨을 갓 졸업한 로펌 신입변호사, 대기업 맞벌이 부부, 대학원생 등 상대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은 이들을 다수 취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미개’라는 하위 키워드이자 청년층이 내보이는 감정적 표현에 대한 보수와 진보매체 간 미세하지만 상반된 주목도 의미와 가치작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의 기사에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게 된 배경은 취업난과 좁아진 계층상승의 가능성, 이른바 ‘노오력’ 혐오와 ‘수저계급론’ 등장을 중심으로 재현된다. 원인 진단은 주로 현재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실업률, 자살률이나 기득권의 부정과 같은 사회적 문제점들에 집중된다. 반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 일간지들은 헬조선을 풀이하는 기사에서 헬조선이 ‘미개’와 상대적으로 강한 연관성을 맺는다는 측면을 환기시키며,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축적되어온 사회적 불평등과 그러한 현상이 구조적으로 공고화된 현재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발로서 헬조선 현상이 부상했다는, 더욱 ‘통시적인’ 진단의 관점을 취한다. 일견 비슷한 구성과 내용의 헬조선 관련 소개와 설명을 담은 기사인 듯하지만, 이 현상의 맥락과 원인을 어느 시기 혹은 어떤 심급까지 ‘문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매체 간의 관점과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미세하지만 확연하게 포함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헬조선 관련 기사들의 생산 과정에 있어, 얼마나 추가적인 취재와 보도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혹은 비평문과 칼럼 등으로 구성된 기고와 의견을 담아내는 영역에서 어떠한 가치작용이나 공세적인 비판과 논쟁과 주장 등이 등장하는지의 측면에서 더 큰 차별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특히 ‘노동 개혁’ 등의 공적인 현안을 비롯하여, 청년세대의 국가관, 역사관과 애국에 관한 문제,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정책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들과 헬조선을 함께 연결시켜 보도한 일련의 사건과 이슈 제기형 기사들 속에서, 헬조선을 둘러싼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간의 더 차별적인 의미작용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사례들을 논하고자 한다.

2) 사건과 이슈 관련 기사들의 특징과 명암

2015년 중반을 기점으로서는 상당수의 주요 매체들 속에서 헬조선이라는 키워드를 논하는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민중총궐기 집회,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 청년배당 등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이나 정부의 노동 개혁 법안 등 굵직한 사회정치적인 의제들과 함께 헬조선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측면을 예시해주는 주요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① 아무 일도 안 하며 ‘헬조선’ 불만 댓글…‘잉여’인간 160만 명으로 급증(조선일보, 2015,

- ② 오세훈 “젊은이들 자긍심 부족, 헬조선 표현” SNS·온라인서 비판 받아(경향신문, 2015, 11, 13)
- ③ 김무성, 왜곡되고 편향한 역사의식 가르치니...‘헬조선’ ‘망할 대한민국’ 단어 유행해(경향신문, 2015, 10, 26)
- ④ 청년단체들 14일 ‘순가락 행진’ ‘헬조선 뒤집’ 등 집회(경향신문, 2015, 11, 13)
- ⑤ 헬조선의 청년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한겨레, 2016, 3, 17)
- ⑥ 흡수저·헬조선 바꾸는 한 표...꼭 투표하세요!(한겨레, 2016, 4, 12)
- ⑦ 2030의 ‘선거반란’(한겨레, 2016, 4, 14)

우선 <조선일보>의 2015년 10월 13일자 기사 “아무 일도 안 하며 ‘헬조선’ 불만 댓글...‘잉여’인간 160만 명으로 급증”에서는 ‘헬조선’ 현상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관점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 기사는 ‘헬조선’이라는 발화 자체를 사회적인 ‘불만’으로 규정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잉여’들의 소행으로 몰아간다.

지난 8월 기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사람이 159만 2000명에 이르렀다. 통계청은 7일 질병, 가사, 군 복무 등 어떤 이유도 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쉬는 사람들이다. ... 잉여들은 사회 불만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 잉여가 이유를 사회에서 찾는 것이다. 박씨의 경우 인터넷 기사를 접할 때마다 다양한 악성댓글을 쏟아낸다.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사회)’ 같은 말을 쓰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댓글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댓글은 인터넷상 분란을 일으키면서, 스스로는 행동으로 옮기는 지경에 이르면서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조선일보, 2015, 10, 13)

하지만 이 기사는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 기사가 인용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사람’과 ‘구직 단념자’는 젊은 층만이 아닌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체 세대를 포함하는 수치이기에, 이들을 ‘불만 댓글’을 다는 ‘잉여’로 규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또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젊은 층이라고 해서 ‘잉여’로 규정되고 ‘사회 불만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박약하며 설득력 또한 크게 부족하다. 그리고 헬조선 현상을 논하는 이 기사의 말미에서는 갑자기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 또한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과 더불어 논리적인 비약이 등장하는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이 기사는 결론부에서 “잉여는 미래

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층의 극단적인 사례란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제언을 제공하지만, 그 직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단선적인 논리와 ‘경사진’ 해법(tilted solution)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조선일보〉라는 한국사회 내 강력한 보수매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재계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의 ‘노동 개혁’을 지지해왔으며, 이 키워드와 관련된 사회적 의제와 담론작용을 적극적으로 생성해왔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기사는 상당히 편향적이며, 청년층이 대면하는 사회경제적인 위기의 상황을 충분히 다면적으로 이해하거나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헬조선에 관한 사건 및 이슈 관련 진보 일간지의 기사들 중에는 오세훈이나 김무성 등과 같은 현역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간접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 기사는 이러한 유력 정치인의 발언에 관해 상세한 비판적 해독이나 전문가 집단의 반론 등을 신기보다는, 국정교과서의 추진이라는 사회적으로 갈등적이며 청년 문제와도 거리가 상당한 사안이 어떤 식의 목적성이 갖든 논리나 강변으로 포장되는 지를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인용문을 전달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경향신문〉의 경우,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공개 강연을 통해 “요새는 헬조선 등의 표현도 서슴없이 튀어 나온다”며 “젊은 사람들 가슴 속에서 자긍심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 발언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며 청년층의 ‘편향된’ 역사 인식에 따른 자국비하의 결과로서 헬조선 현상을 규정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시 대표의 발언 등을 전함과 동시에, 네티즌들이 제기한 비판적인 반응들을 기사 속에서 짧게 녹여내기도 했다.¹²⁾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가 26일 “역사적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고 편협한 역사의식을 가르치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이 ‘참 못난 나라다’, ‘우리나라 중진국으로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패배의식을 가진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나라 안에서는 ‘헬조선’, ‘망할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유행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5, 10, 26)

12) 국민일보는 기성세대가 헬조선 현상을 바라보는 ‘불편함’과 비판점을 다룬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지옥 같은 조선을 떠나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라. 그리고 그곳이 천국인지 공부해 봐라”(이여령 전 문화부 장관, 10월 〈중앙일보〉 인터뷰), “너희는 포기가 무슨 선택쯤 되는 줄 알더라만 나는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9월 ‘늙는 게 罰(벌)은 아니다’ 칼럼), (국민일보, 2015, 12, 10). 한편 〈조선일보〉의 일부 칼럼과 기획 기사는 일본에서 들어온 “달관세대”와 같은 개념을 ‘평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회적인 맥락이 상당 부분 휘발된 방식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경향신문〉은 한국사회 내 화두로 떠오른 헬조선 담론 안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크고 작은 활동들에도 주목하는 보도를 제공하기도 했다. “청년단체들 14일 ‘순가락 행진’ ‘헬조선 뒤집는’ 등 집회”라는 〈경향신문〉 2015년 11월 13일자 기사는 일부 청년 단체들이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연대해 다양한 집회와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한다’라는 내용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한 국면이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향신문〉의 보도는 헬조선 현상의 의미 구현을 넘어서, 청년층의 일부가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기사 본문에는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행사’를 개최하는 청년 단체 ‘청년하다’ 등 여러 청년 단체의 행동 목표와 활동 방향 등의 이야기가 담겼다. 이 기사는 청년층의 일부가 사회 참여와 공적인 저항의 대열에 참여하는 측면을 부각한다.

〈한겨레〉 또한 사회, 경제, 문화면 등 지면 속에서 헬조선 현상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도적인 측면과 대안에 주목하는 시도들이 일부 눈에 띈다. 2016년 3월 17일자 기사 “헬조선의 청년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공약으로 ‘청년수당’을 제시한 바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까지 넘어야 하는 장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 졸업장을 따야 하고 각종 자격증을 갖춰 스펙을 완성해야 한다. 타지 생활하는 학생에게는 집값도 큰 부담이다. 흠수저 취준생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서울시의 ‘청년활동비’와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이들에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를 주자는 지자체의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한겨레, 2016, 3, 17)

이 기사는 헬조선 현상에 관한 기존의 의미 구성과 함의를 진단하는 방향성을 벗어나서, 청년수당과 청년활동비 등의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현안이자 쟁점으로 등장한 특정 사안을 다룬다. 특히 2016년 4월 무렵에는 헬조선 관련 기사가 상당히 증가하는데, 이러한 측면은 4·13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투표를 ‘고무’하기 위한 작업으로 추정된다. 총선 전날인 2016년 4월 12일자 기사의 제목은 “흠수저·헬조선 바꾸는 한 표…꼭 투표하세요!”다. 한편, 〈한겨레〉는 선거 이후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선전한 선거 결과의 함의를 논하면서, 헬조선 현상을 타개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으로 청년층의 참여를 강조하는 기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선전한 것은 20~30대 젊은이들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당연히 누려야 할 꿈과 희망조차 잃은 ‘엔포 세대’가 ‘헬조선’을 탈출하기 위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갔다는 것이다. 선거일인 13일 투표 현장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고민과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실망감을 쏟아냈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투표장에 나온 한정범(31)씨는 “결혼을 해야 할 나이라 결혼과 출산·육아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를 보면 정책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기 사람 심기에만 급급하거나 기득권 유지에만 신경을 쓰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6, 4, 14)

헬조선을 키워드로 녹여내거나 거론한 각 매체의 정보 제공형 및 해설형 기사들을 분석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급부상한 이 신조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신문의 주요 독자층인 기성세대의 구성원들에게 이 명명법의 연원과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배경을 상대적으로 담담하게,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용례를 활용하면서 설명해주는 정보제공형의 기사들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헬조선이라는 키워드를 대입하면서 일정한 문제의식이나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주창하는 기사들이다. 또한 보수언론의 헬조선 관련 기사가 주로 정보 제공형 유형의 기사 위주로 제시되었다면, 진보매체는 더 다양한 기사들 속에서 헬조선이라는 키워드를 이슈화하면서, 이를 청년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고려와 참고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진보언론 지면 내에 특정한 공적 이슈와 사건을 헬조선과 연계한 기사들 속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정치 과정에 대한 더욱 활성화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측면을 전술적으로 의제화하는 기사들이 일정한 가시적인 흐름을 구성한다. 이러한 측면은 부분적으로 진보언론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정파성의 발휘나 일정한 세력화의 기획을 반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 주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사회적인 의제와 반향이 갖든 공적 사안으로 표출하는 측면에 대한 이슈화는 단순한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확장된 의의와 중요성을 매개하기도 한다.

부연하면 헬조선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정보 제공형이나 해설 제시형 기사들에서 4개의 일간지가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지만,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우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2030’, ‘청춘’, ‘신조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를 소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제시하기도 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는 청년층이 발현하는 감정의 동학이나 이들이 표출하는 신

조어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과 함께, ‘한국사회의 미개함’ 등에 초점을 맞추어 헬조선이 내포하고 있는, 풍자적인 동시에 사회문제적인 측면의 함의에 더 집중하는 면모를 보인다. 예컨대 <조선일보>가 헬조선 현상을 ‘한국 혐오 신드롬’으로 명명한 부분도 진보매체와는 일정하게 차별되는 점이다. 앞서 논한 <조선일보>의 기사 “아무 일도 안 하며 ‘헬조선’ 불만 댓글… ‘잉여’인간 160만 명으로 급증”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언론에서는 이 키워드를 ‘불평·불만’이라는 프레임으로 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에 진보언론은 헬조선의 상황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각 매체의 헬조선 관련 광의의 해설 형식의 기사를 비교해보면, 정보 제공 측면의 일정한 공통점 외에, ‘헬조선’ 현상에 대한 각 매체의 정파적인 차이와 차별적인 의미작용이 부분적으로 발휘되고 있는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향성은 특집 또는 연작 기사와 하단에서 논할 기고문에서는 더 큰 폭의 차별성이나 대립각을 보이게 된다.

3) 특집 혹은 연작 기사들이 보여주는 특징과 함의들

특집 및 연작 기사에서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차이점과 간극이 더 두드러졌다. 먼저 <조선일보>의 경우 ‘헬조선’과 관련된 기획 기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월간지 <신동아>와 주간지 <주간동아>에 게재된 연작 기사 외에는 게재된 기획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에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2016년 초를 기점으로 헬조선과 관련된 매우 길고 비중이 상당한 기획물이 등장한 바 있다. <경향신문>의 “부들부들 청년”과 <한겨레>의 “더불어 행복한 세상-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이 그러한 사례들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선정한 보수 성향의 일간지에 별다른 기획 기사가 없었기에, <신동아>에 실린 연작 기사와 더불어,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의 특집 기사 “청춘리포트”와 <한국일보>의 “한중일 청년리포트”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헬조선’과 관련된 분석이 담긴 <신동아>의 기획 기사들 중 연구 측면에서 관련성이 큰 두 편을 논하고자 한다. 2015년 11월호의 “2045년 광복 100년 대한민국”과 2016년 4월호에 실린 <신동아>와 엠브레인 공동 기획 “좌절세대와 중산층”은 ‘2030세대’ 1,600명과 1,200명을 각각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논지를 끌어간다. 2015년 11월호의 “2045년 광복 100년 대한민국: 나아진다는 희망 없다. ‘脫한국’이 답이다”에서는 헬조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조사의 결과를 풀어내는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동아〉는 창간 84주년을 맞아 현재 우리 사회의 담론으로 자리한 헬조선 신드롬의 원인을 찾고, 젊은 세대가 희망하는 ‘미래 한국’을 가늠해보기 위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 영화 ‘국제시장’의 덕수와 영자는 부부싸움을 하다 애국가가 나오자 싸움을 멈추고 태극기를 향해 서서 가슴에 손을 얹는다. 덕수와 영자의 막내자녀나 손자뻘인 요즘 2030세대라면 어떨까. “나는 한국이 싫다”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51%)는 응답과 동의하지 않는다(49%)는 응답은 절반씩 비슷하게 나왔다. 둘 중 한 명은 한국이 싫은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공평하지 않고(24.4%), 빈부격차가 심하고(15.7%), 경쟁이 심하기(9.3%) 때문보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기(50.6%)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신동아, 2015, 11월)

〈신동아〉의 기획 기사는 보수매체들 중에서 헬조선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성되던 초기 국면에 이 주제를 진단하는 작업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 기사는 또한 대중적으로도 상당히 회자된 강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를 ‘징후적인’ 사례로 들면서 이른바 ‘탈조선’을 감행하는 작중 주인공 계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탈조선을 더 꿈꾸고 있다는 단면을 지적한 바도 있다.

‘알파걸’ 시대라지만 일자리에 대한 걱정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심했다. 성과 연령별 8개 집단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라고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24세 여성(44%)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실무를 담당한 진명연 엠브레인 연구원은 “남성은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경쟁자는 20~24세 여성과 25~29세 남성”이라며 “두 집단의 응답 차이가 9%포인트에 달하는 것은 여전히 여성이 취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신동아, 2015, 11월)

하지만 이 기사 속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분석이나 진단이 충분히 다면적이지 못하며 치밀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설문 파트가 끝난 후 “흠수저라도 있는 게 어디냐고? 우린 기회의 평등을 소망한다”에서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섭외된 ‘2030세대’가 토론한 내용의 일부를 제시한다. 20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학생 토론자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제시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표피적인 진단에 머문다.

2016년 4월호에 실린 〈신동아〉와 엠브레인 공동 기획 “좌절세대와 중산층”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헬조선 신드롬’에 관한 분석적인 기사를 제공한다. 이 특집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함을 강조하면서 청년세대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성공’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는다. 이 기사는 또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수저계급론과 부모세대의 자산 차이가 자녀들에게 생성하는 차별, 그리고 청년층에 확산되는 자조적인 분위기 등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에 관해 비교적 길게 기술한다.

중산층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고 확산되도록 도와주는 계층이다. 중간계급이 두터워야 사회가 건강하게 마련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중산층에 진입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성공’을 의미한다.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도 자식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다. … 요즘 청년들 사이엔 ‘흙수저’, ‘금수저’ 같은 말이 일상처럼 쓰인다. ‘수저론’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녀 계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노력(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성세대의 비판을 비꼬는 표현)’해도 ‘헬조선’에서는 ‘N포 세대(거의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자조가 팽배한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신동아, 2016, 4월)

〈신동아〉의 두 기획은 청년층의 “나아진다는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과 헬조선 현상을 탐색하는 작업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과 청년 주체들의 미래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관점 등을 포함하는— 단순한 정보 제공형 기능 이상의— 집중된 언론의 관심을 기울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발현한다. 하지만 이 기획 기사는 주로 설문조사 결과를 ‘소극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보이며, 분석 대상의 범위가 좁고, 헬조선이라는 문제의식이 부상하게 된 상황과 맥락에 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동시에 정태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헬조선으로 명명된 불안하고 위축된 현실을 직접 겪어내고 있는 당사자들과의 면 대 면 인터뷰와 문제의식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명하는 방식을 시도했다면, 〈신동아〉의 기획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드리운 문제점에 더욱 근접한 진단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한 내용을 기초로 기사를 구성한다.

〈신동아〉의 이 기획을 제외하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제시한 특집이나 연작 기사는 없었기에, 〈중앙일보〉의 “청춘리포트”와 〈한국일보〉의 “한중일 청년리포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중앙일보〉의 “청춘리포트”와 〈한국일보〉의 “한중일 청년리포트”: 청년층은 어떻게 살아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중앙일보〉의 이 특집은 현실 속 청년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겠다는 기획 의도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취재팀의 인적 구성 또한 20~30대 기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획부터 기사 작성과 출고에 이르기까지 팀장-부장-국장으로 이어지는 사전 보고의 과정을 없앤 독특한 기사 생산 과정을 통해서 구현된 작업물이다.¹³⁾

이 기획물의 시발점은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일보〉는 “젊어진 수요일: 청춘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청춘 섹션’을 기획하면서, 청년층이 향유하는 일상문화를 취재하고, 이들 주체들의 애환과 고민을 담아내는 동시에, 신문의 주 독자층인 기성세대에게 청년층의 현실을 복합적으로 소개하는 목적성을 담은 연작 기사들을 신기 시작했다. 연애, 대학, 취업, 패션이나 유행, 관심사 등과 같은 비교적 연성적인 소재들을 다루면서도, 이와 함께 청년층이 경험하는 무거운 사회적인 현실을 구성되는 서사 속에 녹여내는 기사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 바 있다. 이는 초기 기획 기사를 예고하는 보도 이후,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재난과 헬조선 담론이 부상하게 되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위기의식과 절망에 대해 취재진이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투영한 결과이기도 하다.¹⁴⁾

처음에는 2030세대가 뽐어내는 반짝거림을 담고자 했다. 영똥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발하고도 선명한 청년의 이야기들 말이다. 하지만 첫 기사가 나간 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세월호 침몰사건이 터졌다. 필자들은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기자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 대한민국 2030세대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게 청춘리포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청춘리포트에는 그래서 젊은이들의 깊은 절망이 스며 있다. 인턴이라는 족쇄에 묶여 상사의 와이셔츠를 빨고 팀장의 아침식사를 배달하는 서클노예, 시간당 2만 원이라는 냉동 창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동상에 걸린 발가락을 잘라낸 슬픈 젊음, 등록금 마련을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해 피를 파는 한국판 허삼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격무를 감당하다가 스러져간 청

13) 〈중앙일보〉의 이 연작은 2014년 4월부터 2년여에 걸쳐 연재된 기사들을 엮어 최근에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14) 청춘리포트 팀장이 “지난해 4월 20~30대 독자를 위한 청춘리포트 섹션을 기획하고 ‘청춘은 사랑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예고 기사를 내보냈다”며 “그런데 기사가 나간 당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정된 기사 대신, 세월호 사고를 취재한 20~30대 기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새로운 기사가 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일보, 2015, 5, 20).

년... (중앙일보, 2016, 6, 29)

〈중앙일보〉의 기획에서 주목할 측면은 그간에 상당수 언론에서 크게 시도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기사 형식과 더불어, 청년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상대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련의 주제들을 선정했다는 점이다. 이 기획에 포함된 대부분의 기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취재하여 작성되었고, 인터뷰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풀이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또한 군인, 탈북자, 장애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등 기존의 청년층 관련 취재 보도물에서 통상적으로 다루어진 20, 30대 대학생이나 직장인에 국한하지 않으며, 비교적 다양한 대상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점에도 일정한 의미와 대안적인 접근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주카페나 거리의 낙서 등 청년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속마음을 표출하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수렴한 기사들도 제공한다. 한편, 취업·주거·신조어·세대 갈등·정치적 가치·성문제·문화·연애와 결혼 등 다채로운 소재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관심사와 현실을 다루는 텍스트이기에, 독자들에게 일정한 읽는 재미를 제공하며, 종종 무겁지 않은 방식의 ‘경쾌하고 감각적인’ 스토리텔링을 시도한 측면이 눈에 들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이 특집은 다소 표피적인 측면의 청년들의 현실과 결부된 사실성에 충실하며, 더 치밀하게 문제의식을 전개하지는 않는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즉, 매우 다양한 접근법으로 청년 주체들이 힘겨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의 단면들을 풀어내면서도,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집합적인 문제점이나 부조리에 대해 더 심화된 해독이나 사회적으로 확장된 문제의식이 차종된 진단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첨언하면 이 특집 리포트는 전반적으로 청년층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관해 매우 광범한 소개와 예시들을 제공하지만, 기사들 속의 주요 내용은 한층 심화된 다큐멘터리적인 글쓰기와 진중한 진단의 힘을 발휘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

〈중앙일보〉의 2015년 12월 9일자 기사 “극한 알바, 젊음이 휘발되는 것 같아”에서는 ‘고임금-고위험 알바’를 하는 청년 3명의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다. 이들은 각각 약을 먹고 피를 뽑는 임상시험 알바와 수산물이나 아이스크림 등을 포장한 뒤 운반을 하는 냉동 창고 알바, 애인대행업소 알바를 경험한 적 있는 청년들이었다. 이 기사는 청년들의 대학과 알바 경험에 대해 소개하면서, 극한 알바라는 경험을 하게 된 이유와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지만, 청년들이 ‘고수익-고위험 알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인 낮은 최저임금의 문제나 일자리 부족 등과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더욱 치밀한 진단과 심화된 문제제기는 간헐적으로만 등장한다.

이 기획은 청년층 일부가 과도한 자기관리와 노동,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현 상황에 대한 수많은 예시적인 소개나 어려운 집합적인 초상을 포착해내며, 기성세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를 폭넓게 조명한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현실에 대한 심화된 진단이나 다면적인 해석은 충분히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소재주의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부연하자면, 이 기획은 청년들의 사회적 귀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와 사진 혹은 그림과 짚고 명확한 서술 및 흡인력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기성세대들에게 이들 주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기민하게 풀어내는 데에 일정한 설득력과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반면에 내러티브 저널리즘 계열의 더욱 진중하면서 관찰력과 현장감, 그리고 진단의 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작업을 제공하는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한편, 이 특집에서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영위하는 그늘진 삶 속에서 스스로 좌절만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희망적인’ 내용과 메시지도 종종 등장한다. 2016년 1월 7일자로 지면에 실린 ‘별 보며 웃고, 찬바람에 떨고… 가난한 날의 낭만, 옥탑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자.

옥탑방은 가난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좁은 골목길에 흑처럼 솟아 있는 옥상 위 방들…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청년들이 주로 저 옥탑방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어쩐지 애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옥탑방 청년들은 좁은 방에서 저마다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훗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옥탑방을 택하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옥탑방에서 새로운 꿈을 찾고 있는 신혼부부, 직장인,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중앙일보, 2016, 1, 7)

이 기사는 옥탑방이라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상징으로 흔히 사회적으로 표상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청년 주체들의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서 접근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낭만”이라는 표제어에서도 미루어볼 수 있듯, 옥탑방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을 취미 생활이나 하루 일과, 향후 이사 계획 등을 중심으로 그려내며, 이 기사가 상당 부분 청년들의 ‘밝은’ 모습이나 현실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톤으로 기술된다는 점이다. “옥탑방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은 아름다웠다”라는 서술과, 햇볕에 빨래를 말리는 일을 “옥탑방만의 특권 중 하나”라고 기술한 인터뷰 대목이나 주거비를 아껴 취미 생활을 하는 모습이 부각되는 한편,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옥탑방의 건축구조상 문제로 인한 고질적인 냉난방 문제, 그 밖에도 겪어야 하는 거주 불편함은 에피소드 정도로 의미가 축소된다.

첨언하면 주거공간을 둘러싼 청년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 차이에서 유발되

는 주거사회학적인 차별성이나 주거 빈곤 등과 같은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탐색하는 관점은 이 기사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는다(정민우, 2011). 예컨대, 옥탑방에 살며 언젠가는 더 나은 주거공간으로 옮겨가겠다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희망적인’ 면모를 담아내는 기사 속에서, 고시원과 전세방 혹은 ‘닭장집’과 원룸 등과 같은 거주공간을 벗어나기 어려운 청년들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은 다면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거나 심화된 방식의 논점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¹⁵⁾ 이처럼 <중앙일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는 반면에, 청년들이 ‘옥탑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동인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하고 있지 않으며, 간단한 통계자료나 실태 정도를 소개하는 선에서 그친다. ‘옥탑방’이라는 주거환경이 주는 환경적인 불편함이나 청년가구가 짊어져야 하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주변화하고, 옥탑방에 살아서 유용하고 편리한 측면이 있다고 논하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 현실이나 ‘주거 복지’와 착종된 더욱 적확하고 상세하고 문제의식을 결여한 관점으로도 파악된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 특집 속에서 연애, 사랑, 술, 결혼 축의금 등 더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청년의 모습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는 청년들이 대면하는 현실을 사회적 차원의 거시적인 문제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어떤 확장된 ‘이슈’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트렌드’에 가까운 연성적인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글을 쓰는 것보다 노트북이 익숙해 대부분의 청년들이 악필이라는 사실과 여성들의 ‘걸크러시한 매력’이 남성들에게 더 인정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는, 상당수 청년층이 고심하며 고뇌하는 핵심 사안들을 주의 깊게 진단하기보다는, 상세하지만 지엽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 이 기획 연작의 성격과 방향성을 일부 드러내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중앙일보>의 기획은 다른 보수매체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기적인 연재물이자, 비교적 광범하게 청년층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일종의 다채로운 파노라마식 구성으로 탐색한 특집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통계자료와 설문결과를 그래프나 그림

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월세 비율은 1990년 당시의 29.0%에서 2010년에는 45.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가구의 약 30%가 지하층이나 옥탑방 혹은 고시원 등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거 빈곤’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축축한 지하와 햇살 한 줍 들어올 창문이 없는 고시원 생활이 청년이라고 고통스럽지 않을 리 없건만 주거 빈곤 상태의 서울 1인 청년 가구는 2000년 7만 6074명에서 2010년 12만 801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최은영, 2014, 9, 22).

등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표현과 감각의 측면에서도 창의적인 스타일의 기사들을 구현하는 등, 접근 방식에서도 참신한 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청년 주제들의 삶을 다양한 소주제들과 영역을 가로질러가며 소개하면서, 언론이 간과하기도 한 이들 삶 속의 주요 단면들을 다양하고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다는 측면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획을 설명하는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는 “청춘리포트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20~30대 기자들이 슈퍼 올인 청춘의 민낯을 취재해 기록한 자화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채윤경, 2016, 7, 6), 현재 청년층이 대면하는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이나 선이 굵은 방식으로 탐구되는 진중하고 무게감이 실린 분석은 충분히 전개하고 있지 못한 편이다. 이 연작이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확산될 정도로 내몰리고 위축되는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적인’ 양상들을 더 정치하게 풀어내기보다는, 몇 개의 가시적인 사회문화적인 트렌드를 중심으로 다소 ‘완만하게’ 훑는 형식의 기획을 제시한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¹⁶⁾

한편 <한국일보>는 “한중일 청년리포트”라는 제목의 “온·오프 크로스오버 기획”을 내놓은 바 있다. ‘청년 문제’를 취업과 창업, 주거, 결혼, 그리고 관계라는 총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주제에 따라 각각 한국·중국·일본 청년들의 사례를 다루는 총 12편의 기사를 연재했다. 특히 한국사회를 넘어서 동북아 청년층의 삶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양극화의 영향, 그리고 취업과 구직의 단면들이나 사회적 불안정성 등을 이 세 나라에서 살아가는 청년 38명과 인터뷰를 통해서 예시적으로 그리고, 상호대조와 비교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담아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5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헬조선’이었다. ‘노오력’에 지친 청년들에게 희망은 사치라 여겨졌다. 울분이 차올랐다. 하지만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긴 쉽지 않다. 벽에 부딪힌 청년들은 ‘금수저’ 앞에 자조하고, 그중 일부는 차별을 통한 비교 우위에서 위안을 얻기도 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이웃나라 청년들의 삶은 어떨지 궁금했다. 설핏 생각하면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무려 20년을 잃어버렸더니 비정규직 일자리에도 득도한 사토리 세대일 테고 ‘소황제’, ‘소공주’ 대접을 받으며 자란 중국 청년들은 ‘금수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관시(關係·연줄)’에 환멸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래서 서울과 도쿄, 베이징의 청년들을 직접

16) 예컨대 <한겨레21>의 “노동OTL” 시리즈를 기획했던 안수찬 기자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시한 “그들과 통하는 길: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빈곤 청년의 실상”(URL: <http://ppss.kr/archives/36592>)과 같은 작업이 제기하는 분석적인 시선이나 치열한 문제의식과 <중앙일보>의 이 기획을 비교하면, 왜 본문에서 제기한 방식의 비판이 가능한지를 엿볼 수 있다.

만나봤다. ... 중국과 일본, 단순히 한국의 과거와 미래라 여기는 이웃나라 평범한 청년들의 삶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한국일보, 2016, 1, 4)

〈한국일보〉의 이 특집은 특히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으로 문제의식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한편, 구성적인 특징으로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의 주제를 풀어내면서 각 나라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며, 청년들의 인터뷰는 각 지역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관찰을 일부 녹여내면서 제시된다.

메이지대 국제일본학부 4학년인 가미야 아키노리는 이미 8월에 일본의 원조 재벌 기업인 미쓰비시 제강에 합격했다. 15군데 정도 면접을 봤다는 가미야는 “취업난이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다”며 “주변에 취업이 어렵다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2011년에 일본에 건너온 한국인 유학생 이아인(24)씨는 지난해 3월 다쿠쇼쿠대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귀국 대신 일본 현지 취업을 선택했다. 이씨는 “한국 친구들 얘길 들어보면 ‘100군데 넣어도 안 된다’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들뿐”이라며 “일본에선 대기업만 고집하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진 않다”고 말했다. 또 “대학에서 함께 밴드 활동을 한 친구들은 수업도 자주 빠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합격했다”며 “일본에선 저런 친구들도 취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일본엔 이력서에 학점을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일보, 2016, 1, 12)

‘취업과 창업’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위의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한·중·일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한 세 나라의 고용과 취업의 현황과 더불어 구직과 창업에 대한 각국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주목한다. 특히 위에 인용된 기사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 청년들에게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삶이 문제라는’, 한국과는 매우 차별화되는 사회적인 단면을 강조한다. 한편, 〈한국일보〉는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이라는 뜻의 ‘블랙기업’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며, 이런 사안에 대한 일본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 연작이 다루는 중국 청년들의 경우, 한국보다 강도가 심한 빈부 격차와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요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 기사는 취업을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이 중국사회의 관습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학 진학률이 매년 1%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기사는 늘어나는 대학 졸업

생들 다수에게 학력에 걸맞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어려운 중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기사에서는, 관련 통계자료는 물론이고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한 거시적인 진단도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외국 사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태적인 진단을 제공하는 데에 머문다. 예컨대 일본과 중국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에서는 ‘블랙기업’, ‘대학 진학률과 관련된 통계’ 등 사회구조적인 현실을 압축시켜 전하는 근거 자료들이 포함되는 반면에, 한국 청년들의 상황을 전하는 기사들의 경우 주로 평면적으로 구성된 인터뷰 포맷과 “26살 남자의 정의(定義) ‘대기업과 중소기업 아니면 취준생’”(한국일보, 2016, 1, 12) 같은 시사적인 제목 속에 개별 사례들을 배치한다. 이 기사는 헬조선을 둘러싼 현실 인식이나 사회적인 쟁점에 관한 진단을 복합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스스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설파하기도 한다.

“저는 도피성 어학연수도 가보고, 도피성 창업도 해봤고, 졸업 유예도 했었고, 막상 대학원 진학도 도피성이 짙죠. 하지만 결국 도망갈 데는 없어요. ‘탈조선’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는 제게 ‘좋은 손가락 타고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두 가집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지옥이라는 것, 그리고 일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는 거죠. 일에서 어떻게 재미를 찾냐구요? 그래서 끊임없이 삶의 목표를 되뇌며 살고 있습니다.”(강병우, 27, 대학원생). (한국일보, 2016, 1, 12)

이 기사에 등장하는 청년 주체들 상당수는 입을 모아 취업난에 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호소하지만, ‘사회구조’를 탓하거나 관련 제도의 미비함을 짚어내기보다는,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취했던 ‘태도’나 어려움을 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전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청년층의 관점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일보〉가 앞서 언급된 청년들의 입장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극심한 취업난과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층 구체적이고 다면적인 입장에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관계’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취업될 때까지 연애도 안 하

고, 친구도 안 만나고, 쓸데없는 연락도 다 끊고 지낼 생각이라고 했다. 취업에 모든 걸 쏟아 붓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테지만 바꿔 말하면 자신을 외딴섬으로 몰아넣는 일이기도 하다. 스스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건 분명 '배수의 진'일수는 있으나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데는 치명적이다. 비단 이 친구만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영세 자영업자, 워킹맘, 심지어 초등학교생과 유치원생마저도 각자도생 현실 속에서 배수진을 치며 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취업, 결혼, 주거 측면에서 우리보다 더 열악하거나 혹은 여유롭다는 사실은 부차적이다. 그들이 관계를 매개로 어떻게 사회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 2016, 3, 2)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살아가는 각기 다른 청년의 이야기를 다양한 파노라마식 재현으로 소개하는 작업을 시도하면서, <한국일보>가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대안은 '관계'다. <한국일보>는 2016년 1월 15일자 "여유가 말라버린 청년들에게 관계가 필요한 이유"에서 오찬호(2013)의 분석서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를 인용하면서, 현재 20대들이 치열하게 조여드는 경쟁 자체를 당연시하거나 '모범적인 삶'으로 파악하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유형의 차별도 긍정한다고 전한다. 이 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체들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성'의 모색과 구현이 필요한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모색의 사례로 한국의 경우,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성 회복을 지원하는 인디뮤지션들의 사회적 기업 '유유자적 살롱'을 소개하며, 일본의 사례로는 도쿄와 지방 거주 학생들 간의 취업 격차를 줄이려는 실천을 돕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슈토모 카페'를 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연작 기획 속에 제시된 대안과 관련하여 관계의 추구라는 특정 측면에 방향성과 관심이 적지 않게 치우쳤다는 진단을 제기하게도 된다. 현재 청년 주체들이 겪는 일련의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자 모색으로 '관계성'의 측면에 대한 초점이 누락하고 있거나 유의미한 대안이 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측면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기사들 속에서, '쉐어 하우스'라는 대안주거의 형태나 청년세대가 결성한 노동조합 '알바연대', 혹은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여러 '스터디 모임'들과 '취업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청년층이 강하게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과 구조적인 특성을 타개하거나 돌파하는 데에 얼마나 유용하며, 어떠한 현실적인 함의와 가능성을 보이는지에 관한 보다 냉정하고 경험적인 진단은 크게 추구되지 못한다. 조금 다르게 이 연작에서 상세하게 관찰되는 청년들의 '각자도생'의 삶과 경쟁에 대한 수용이나 순응이, 어떤 사회적 맥락성이나 시스템적인 층위에 책임이 있는지의 측면도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

가 있다. <한국일보>의 청년 관련 특집은 이러한 현실 속의 쟁점에 관하여 충분히 다면적인 진단과 고찰을 시도하고 있지는 못하다.

정리하면 <한국일보>의 기획은 헬조선 현상이 담고 있는 ‘청년 문제’를 중국과 일본의 이웃나라의 청년들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진단하면서 일종의 비교론적인 탐구를 시도했다. 이러한 기획은 일정한 차별성과 의의를 발휘하지만, 한·중·일 청년들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나열하거나 병치시키는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헬조선이라는 위기담론과 상황을 배태하는 사회상과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폭이 넓고 예리한 진단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취업난’ 문제에 있어서 ‘온도차’를 보였다면, 이러한 사회적 특성이나 차이가 어디에서 유발되는지에 관해 관찰점을 심화시켜 고찰해보고, 한국과 일본의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하거나 관련 통계자료를 좀 더 밀도 있게 활용하는 과정이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2)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특집기획: 청년층은 왜 힘들며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문제의식과 집합적인 모색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일보>와 <한국일보>가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위축되고 낙락하지 않은 현실 속에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녹여내는 보고서 형식의 ‘리포트’를 기획했다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청년은 왜 힘든가?’라는 보다 구체적이며 집중된 문제의식을 보다 조밀하게 탐구하는 장기적인 기획을 진행했다. 제목부터 <중앙일보>와 <한국일보>가 차용한 ‘리포트’와는 차별되는 표현들을 사용했다. <경향신문>은 청년 앞에 ‘부들부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청년들이 현재 한국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겨레> 역시 ‘공정한 출발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불공정한 출발선’이자 사회적 정의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성찰적으로 되돌아볼 필요성이 지대하다는 측면을 환기시키는 함축적인 제목을 선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경우 2015년 8월, 헬조선 관련 기사와 사설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부터 헬조선과 관련된 크고 작은 기획기사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사회 없는 국가, ‘희망’ 잃은 청년…‘한국은 지옥이라 불려 마땅하다’”(2015, 9, 4)와 “헬조선에 태어나 노오오오오오(필요해)”(2015, 9, 4)라는 두 편의 커버스토리에 이어서 2015년 10월, <경향신문>은 “헬조선 외전”이라는 3편의 기획기사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커버스토리에 미처 담지 못한 데이터와 그래픽, 그리고 취재일지를 “헬조선 외전”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헬조선 외전”을 매개로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론적인 근원과 배경을 추적하면

서, 이 특정한 표현을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소수적인 언어이자 한정된 신조어만이 아닌, 한국 젊은이들이 접하는 부조리를 압축시켜 지칭하는 말로 정의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헬조선 외전 ②] 노력은 왜 불가능한가?”(2015, 9, 22)에서는 “한국사회는 정상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도발적인 강조법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징후들로 ‘탈출’, ‘상호증오’, ‘짓눌린 개인’ 등의 현실이 구축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조명한 바 있다.

2015년 11월에 등장한 “新허기진 군상” 시리즈도 헬조선 현상에 주목한다. <경향신문>이 1964년에 시리즈로 선보였던 이 작업은 아사 직전의 농민과 민중들의 실태를 고발했던 바 있다. 이 기사로 인해, <경향신문>은 당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정간조치를 당하기도 했는데, 창간 69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기획한 “新허기진 군상” 또한 과거 이 기획이 취했던 방향성과 공유되는 방향성을 드러낸다. 2015년 다시 시도된 이 시리즈에서는 꿈을 잃은 어린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생활고에 허덕이는 가장의 이야기 등을 시대상과 사회적인 환경을 치열하게 예시하는 주요 상징으로 삼는다.

청춘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 약자의 대명사가 됐다. “흔히들 청년한테 도전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도전해볼 만큼 도전해봤어요. 그런데 사회는 싼값에 저를 부러먹으려고만 하더라고요. 요즘엔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한 카페에서 만난 정지민씨(23·여·가명)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요일인 이날도 정씨는 오전에 3시간 일하고 5만 원을 받는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다녀왔다고 했다. (경향신문, 2015, 10, 7)

<경향신문>이 지속적으로 내놓은 여러 편의 기획 기사들 중에서, 헬조선 현상과 관련된 가장 ‘심화된’ 기획은 창간 7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인 “부들부들 청년”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新 허기진 군상”이 이주노동자, 어린이 등 사회 전반적 계층의 어려움에 대해 다뤘다면, “[부들부들 청년 1부 ①] 우린 붕괴를 원한다”는 20~30대 청년층의 애환과 집합적인 고민들에 집중한다.

2016년 첫해가 떠올랐다. ‘복 받으라’는 덕담이 오갈 것이다. 결심도 세울 것이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다. 삶이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통계대로라면 오늘도 20~34세 청년 6명이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2014년에 2243명의 청년(20~34세)이 자신의 생을 파괴했다. 20~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한 해 1000만 원대의 학비, 스펙경쟁, 취업난, 저임금, 치솟는 주거비에 치이고 있는 젊은이들의 아픔을 보고 싶은가. 청년을 소재로 한 보도는 2015년에만 29만 여건이 쏟아졌다. 클릭 몇 번이면 이 사회의 모순이 응축된 그들의 삶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경향신문>은 새해 화두로 ‘청년 문제’를 파고들기로 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그 미래가 지금 부들부들(부들부들) 떨고 있다. 해법은 분노하고 고통 받는 자의 입에서 나올 것이다. 사회의 모서리에서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실패담’이 아니라 병든 한국을 치유할 ‘문진(問診)’이다. 그들이 툭툭 던지는 자조, 농담, 혼잣말도 분석 대상이다. (경향신문, 2015, 12, 31)

<경향신문>의 “부들부들 청년”은 지난해 11월부터 15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를 총 4부 17회로 구성된 기획기사로 풀어낸 바 있으며, 등장하는 취재원의 범위도 대학생, 직장인, 고졸학력자, 서울 외부에 거주하는 청년 등 가장 다양한 편이다. 총 4개의 하위 기사로 구성되어 있는 “부들부들 청년” 1부에 등장하는 비전문가 취재원의 수는 156명에 이른다. 20대 후반에서 30대가 주를 이루며, 직장인의 직군도 프리랜서 작가, 출판사 직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학원 강사, 중소기업 직장인 등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한편 기사의 톤과 서술의 방식은 지나치게 난잡하거나 복합적이지 않되, 구체적인 사안들의 조명을 근접해서 논하면서 동시에 상징적이면서 함축적인 표현들을 상당수 활용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저 돌덩이로 태어나는 게 딱 이겠다.” 출판사에 다니는 김모씨(29)의 심정이다. 돌덩이에서 ‘달관’이나 ‘유유자적’을 떠올리면 오산이다. 그는 “일도, 살 곳을 걱정하는 것도, 방세를 내면 남는 돈이 없는 것도 지쳤다”며 “식물로 태어나는 것도 싫다. 광합성도 해야 하고 뿌리로 물을 빨아올려야 하지 않느냐”며 단호히 돌을 고집했다. 김씨는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방에 산다. 그는 “방값과 식비를 내면 생활비로 70만 원정도 남는다. 저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돌의 생을 동경한 건 아니다. “10년을 모아도 위성도시의 집 한 채조차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이번 생의 희망이 사그라져갔고, 그냥 돌이 되고 싶어졌다. (경향신문, 2016, 1, 3) “[부들부들청년 1부 ② 이번 생은 망했어요] ‘다음 생엔 돌덩이로 태어나고파’”

특히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경향신문>은 ‘이생명(이번생은 망했어요)’, ‘찍퇴(찍어서 퇴직)’, ‘사축(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길러지는 가축에 스스로를 비유하는 표현)’ 등의 청년들이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사회적 대상화를 풍자하는 언어 표현을 제목 겸 기사의 주된 주제로 설정하고, 나아가서 섭외된 청년들의 진솔한 경험과 개별적인 삶의 구체적인 단면들에 스토리텔링의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또한 이 연작 속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헬조선 관련 주요 언론의 보도담론이 주로 서울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류화’ 되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 살아가며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들이 충분한 문제의식이나 관심을 투사하지 못한 관행에 관해 진전된 문제제기를 시도했다는 측면이다. <경향신문>은 이러한 문제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체감하는 정도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현재까지 부상한 헬조선 담론은 수도권 ‘바깥’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충분히 포함하거나 탐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해낸다.

대전 토박이인 이동민씨(32·가명)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교 취업지원팀의 소개로 대전 지역 강소기업에 입사해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그러나 “나는 기회를 잘 잡은(운 좋은) 케이스”라고 했다. “대전에 벤처기업이 많지만, 규모가 작아 한 회사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1년에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이고, ‘공채(공개채용)’가 없어 알음알음 뽑는 소규모 수시채용이 많다”고 말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강원과 충북·충남, 전남·전북, 대구에는 100대 기업 본사가 한 개도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4년 시·도별 청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청년취업자(387만명) 중 53.9%(208만8000명)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지역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문제다. 서울연구원에서 2014년 발간한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보수, 고용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반영한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분포에서 수도권이 60.2%를 차지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도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죄, 꿈의 가짓수부터 달라요.” (경향신문, 2016, 2, 18)

<경향신문>의 특집은 취업준비생부터 시작해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다양한 청년 주체들을 핵심적인 취재원으로 삼아, 이들이 겪는 구체적 경험과 고민, 그리고 상황적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재현하는 데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뿐만 아니라 헬조선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개인의 노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차원에서 문제와 관찰점을 제시하고, 전향적인 정치적 변화를 촉구하는 유형의 대안을 보완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결집된 노력과 함께, 헬조선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과 사회적 인 발화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제외한 채, 수도권 청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는 경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도모하기도 한다.

〈한겨레〉의 경우에도, 광의의 헬조선 현상이나 청년 주체들의 삶에 관하여 2015년부터 꾸준히 기획기사들이 등장해왔다. 2015년도에는 “2015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재기사가 등장했으며, 총 7편의 기사가 연재되었고 대담, 설문조사, 진단과 사설 등의 복합적인 구성으로 청년 문제를 노동과 구직이라는 화두에 주목하면서 풀어낸 바 있다. 임금피크제가 큰 화두였던 만큼 세대갈등,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문제 등의 연계된 일련의 사안들이 헬조선이라는 키워드에 관한 모색 속에서 제시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더 큰 문제는, 청년세대 안에서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조건과 환경의 차이를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출발선부터 달라지는 ‘세습 자본주의’가 청년들의 생각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우리 사회가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80%를 훌쩍 넘어섰고,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겨레, 2015, 8, 18)

첨언하자면 〈한겨레〉가 수행한 기획기사들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내용은 이 현상이 어떠한 맥락성을 발휘하는지를 상세하게 풀어낸다. ‘노오력’을 거듭해도 무엇인가 바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청년층의 절망감이나 집합적인 패배감이 연작 기사들 속에서 꾸준히 조명되며, 다양한 개별주체들의 행로와 불안한 사회적인 궤적들도 소개된다. 〈한겨레〉의 경우, 201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헬조선’을 중점적으로 다룬 기획기사들을 선보인 바 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청년 200명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느꼈던 감정은?”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4일에 등장한 “할말하않 청년들에게 말을 걸다”까지 총 38편의 연작기사가 연재되었다. 그중에서 ‘헬조선’이라는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들어 있는 기사는 다섯 건이었다. 〈경향신문〉에 비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청년 200인보’라는 부제 아래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 당사자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부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사회 내에서 구축되고 있는 ‘고용신분제’의 현실을 조망한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중상 이상’이라고 답한 ㄱ씨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스펙이 생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중하 이하’이라고 한 이들 중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점이나 스펙을 챙길 수 없었다” “높은 스펙을 만들려면 부모님 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대답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가운데 바꾸고 싶은 것’으로 ‘대

학, 성적 등 스펙'(29.5%)과 함께 '경제력과 가정형편'(25.4%)을 꼽았다. 청년들의 취업 경쟁이 '불공정 게임'이 돼가고 있다. 청년 일자리, 특히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을 향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들어가는 돈도 늘어났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이 '최소한의 판돈'(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표현)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게임은 후반부에 더 잔인해진다. 노동시장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들에겐 이후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바늘구멍만큼 좁다. 출신 계층과 일자리가 서로를 규정하는 '고용신분제 사회'의 서막이다. (한겨레, 2016, 1, 12)

〈한겨레〉의 기획 기사 제목이 시사해주듯이, 청년 215명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초점을 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공정한 출발선'이다. 〈한겨레〉의 기획기사들은 '수저계급론'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집합적인 현실과 내부의 기류들을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접근한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문했던 우리 사회의 '성장신화'가 사실은 거짓에 가깝다는 점을 깨닫고 절망한 청년들이 내놓은 것이 '죽창'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헬조선' 담론이다. 〈한겨레〉의 기획기사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자산에 따라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대비되는 지를 일련의 체화된 사례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한 경험밖에 없는데 이력서에 빈칸은 왜 이리 많던지... 제가 봐도 다른 사람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영숙씨는 그러지 못했다. 시간도 돈도 없었다. 톨게이트에서 요금 받는 일을 하면서 홀로 가게를 꾸려가는 어머니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없었다. ...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학비며 생활비 등을 온전히 혼자 마련해야 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 매장, 대형마트에서 학교 근로 장학생까지 늘 일에 치여 살았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바빠 다른 취업 준비를 할 수 없었다. 늘 불안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6, 1, 12)

〈한겨레〉는 또한 단순히 헬조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이 감내하는 역경이나 대면하는 극심한 어려움 등의 사례들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사구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청년 구하기 나선 일본'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사회의 청년 관련 정책 및 청년운동을 소개하면서, 비교의 사례와 해법을 찾으려 했고 '전환을 실험하는 청년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전환'을 찾고 '대안'을 찾는 청년들의 목소리들을 담아내기도

표 3. 청년세대 및 헬조선 관련 매체별 기획의 특징

언론사	경향	신동아	한국일보	한겨레
주요 기획명	부들부들 청년	‘좌절세대’와 중산층	한·중·일 청춘리포트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기간	2016.01.01. ~2016.03.25.	2016년 4월호 연작	2016.01.12. ~2016.01.15.	2016.01.01. ~2016.02.05
기사 편수	1년여에 달하는 기획과 조사 기간을 거쳐, 4부 총 72편으로 구성된 연작을 제공함.	월간지 특집으로 총 6편으로 구성됨.	총 12편의 기사를 연재함.	5주 간 10회에 걸쳐 총 40편의 기사를 보도함.
비고	청년들의 안정된 사회적 재생산이 불가능한 구직과 노동, 그리고 주거의 조건과 상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공적/정치적 해법을 탐구하면서, 심화된 진단과 문제의식을 제시함. 다양한 분석법으로 청년층 1500여명을 취재함. 헬조선 현상과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조직적인 기획을 제공함.	“헬조선에 태어났다고 자조하는” 청년층 12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예상하는 미래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함. 관련 주제에 관한 전문가 진단을 포함함. ‘청년세대의 중산층 인식’을 주요 주제로 삼아, 수집된 결과와 답변을 상대적으로 정태적으로 그리고 짧게 조명하는 한계를 보임.	청년층이 대면하는 문제를 취업과 창업, 주거, 결혼, 관계 등 4가지 핵심 주제로 분류하고, 한·중·일 청년 38명의 사례와 목소리를 인터뷰 방식으로 담아냄. 창의적인 포맷과 비교론적 분석의 특성을 발휘하지만, 더 심화되고 조직적인 진단은 상대적으로 떨어짐.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와 근로 빈곤, 그리고 구직난 등의 문제와 취업 이후에도 지속되는 열악한 삶과 생존의 상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풀어냄. 20대 청년 2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더불어 다양한 사례 진단을 제시함. 구성과 기획력에 있어서 일정한 다면성이 발현됨.

했다. 특히 ‘20대 좌-우에 길을 묻다’라는 기획을 통해서,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의 청년 패밀들을 모아놓고 대담을 진행하면서, 정파성을 벗어나서 우리 사회 내 공유되는 문제의 식으로 청년들의 삶과 위기에 관해 숙의를 나누기도 했다.

각 매체의 특집 혹은 연작기사의 특징 및 함의를 분석해본 결과, 매체별로 헬조선이라는 인식과 담론을 바라보는 상당한 관점과 진단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별도의 기획기사나 특집은 없었다. 이는 연초부터 헬조선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기획물과 심층적인 진단을 추구한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관점과는 매우 큰 차이와 함께, 이 사안을 접근하는 매체 내부의 ‘집합적인 시선’을 유추하게도 해준다. 이러한 흐름은 보수매체가 헬조선이라는 주제와 키워드가 문제영역으로 쟁점화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이 쟁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담론적인 자원과 지원을 주는 측면에는 관심이 적다는 측면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수매체의 특집 및 연작기사가 매우 드문 현실에서, 비교적 긴 호흡으로 ‘청년들의 삶’에 대해 조명한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기사는 청년층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언론이 일정한 관심과 의제화의 노력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현작용은 헬조선 현상이 주변화되거나 무시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의제로 언론사 내 일군의 내부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았다는 측면을 예증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주거빈곤’과 ‘근로빈곤’, 그리고 ‘취업이라는 난제’ 등 청년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동시에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현상 및 전망부재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면서 범주와 대상이 다양하고 포괄적인 기획을 진행한 반면,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연작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연성적인’ 주제와 충분히 집약적이지 못한 주제들을 배치하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현실의 일부를 ‘소개’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점은 아쉽게 평가된다. 또한 〈한국일보〉의 경우, 청년 문제라는 의제를 중국과 일본의 청년에게까지 확장시키는 참신한 시도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사례를 대체적으로 단순 나열하는 선에서 그쳤으며, 세 국가 사이에 작용하는 청년들의 위상에 긴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회적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세밀하고 선이 굵은 방식으로 분석해내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진보언론의 경우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하며 이들의 애환과 고민, 그리고 이들 주체들이 표출하는 사회적 주변화의 단면들을 근접해서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보인다. 연초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특집을 읽었던 일부 독자들은 “너무 우울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지만, 이 두 특집은 청년 당사자들이 처한 현실과 공유하는 경험을 공적인 담론으로 부각·환기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진보언론의 기획 작업이 청년의 암울한 현실을 이러한 상황을 배태한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장기적인 진단을 포함하면서 추구되기는 했지만, 정책적인 개입의 실패나 혹은 심화된 제도적인 대안을 전문가 진단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가면서 보다 촘촘하고 조직적인 방안으로 탐구하지 못한 점은 일부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청년층이 표출하는 기성의 권위와 책임 부재의 사회적 상황에 관해 어떻게 특정한 감정의 동학이나 확산된 불신감을 축적하게 되었는지의 사회화의 단면을 진단과 해독의 힘이 꼼꼼하고 다면적인 방식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기획은 헬조선이 부정적인 대상이거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숙고된 문제의식을 심화시켜야 할 심각한 현안이자 공적인 의제로 상정하고, 현장과 구체적 사례들 속으로 뛰어드는 연작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발휘한다고 판단된다.

17) 〈한겨레〉 2016년 2월 17일자에 실린 이 매체의 열린편집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4) 기고문·비평문들의 의미구현의 특징과 명암

앞서 살펴본 정보 제공형이나 해설 또는 분석 형식의 기사나 기획기사와는 다르게, 기고문이나 비평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각 언론사 내부의 인식이나 혹은 필진의 의견과 가치의 투사를 ‘논쟁적으로’ 개진한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연구진은 기사나 기고자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는지에 분석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비평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고문들의 경우, 특정 언론사 내 내부자들의 칼럼을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각 매체의 기고문과 비평문은 크게 ① 충고·단언·계몽형 ② 공감·위로형 ③ 심화된 담론작용형의 세 가지 갈래로 분류할 수 있었다.¹⁸⁾ 헬조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고문과 비평문 속에는 각 매체가 지향하는 문제의식과 정치적인 지향성 혹은 특정한 담론전략들이 보다 직설적으로 혹은 ‘징후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1) 충고·단언·계몽형 기고문들의 특징과 함의

충고·단언·계몽형의 기사는 주로 보수매체에 실린 기고문 및 사설에서 두드러졌다. 기성세대에 해당하는 필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세대에게 계몽적인 어조로 조언을 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대해 단언을 하는 유형의 글들이 많았다. 연구진이 주목한 대표적인 충고·단언·계몽형 기고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늙는다는 건 罰이 아니다(조선일보, 2015, 9, 22)
- ② ‘헬조선’ 저주의 어두운 그늘(동아일보, 2015, 9, 30)
- ③ 어디에도 천국 같은 나라는 없다(동아일보, 2015, 12, 11)
- ④ 청년이여! 순응-체념 털고 도전하라(동아일보, 2016, 1, 4)
- ⑤ ‘헬조선’을 사는 ‘꼰대’(조선일보, 2015, 8, 20)
- ⑥ 젊은이여, 헬조선에 좌절 말고 통일한국을 꿈꿔라(조선일보, 2015, 12, 17)

먼저 등장 이후에 상당한 비판과 논쟁을 생성한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의 기고문 “늙는다는 건 罰이 아니다”에서는 기성세대인 아빠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한다.

18) 물론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이 조금씩 섞인 기고문들도 존재했다. 분석을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주제문 및 결론을 중심으로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아들아, 내 편지를 보아라. 나도 은퇴가 코앞이다. 어느 날 임금피크제란 말이 들렸다. 뜯어보니 내 얘기더라. 대통령이 말하는 4대 개혁의 본질은 '세대 전쟁'에 있다고들 했다. 불현듯 그제 너와 나 사이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찔했다. ... 징징대지 마라. 죽을 만큼 아프다면서 밥만 잘 먹더라. ... 너희 영어는 혀에 '빠다'를 바른 듯 R과 L, F와 P 발음을 잘 구별하더라. 그것도 우리 기러기 아빠들이 외로움 참아가며 너희를 어미와 함께 외국에 보냈던 덕이다. 아버 혼자 불어터진 라면을 먹고, 아버 혼자 늦은 밤 옥탕에서 '난닝 구 뽀스' 빨며 외로운 눈물을 삼켰다는 것을 너희는 모른다. 그러나 나라 상황이 우리에게 양보하라면 양보하겠다. 아버가 제일 잘할 줄 아는 게 희생밖에 더 있더냐. 다만 우리 세대를 죄인 취급하면 섭섭하다. 정말 화산처럼 분노할지 모른다. (조선일보, 2015, 9, 22)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 이 글이 아빠가 아들에게 조언을 주는 구성을 취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침이나 훈수를 주는 서사적인 흐름과 논지의 구성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기러기 아빠'의 예시를 들며 기성세대의 '양보'와 '희생'을 주로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절규를 '징징댐'으로 '자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조언이나 대화성의 추구를 넘어 훈계와 비판 일변도의 고답적이고 완강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이 기고문 속에서 논의되는 '희생'은 기고문 초반에서 언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 기성세대의 희생'이라는 설정이 공적인 맥락에서 얼마나 설득력과 진단의 힘을 발휘하며, 보다 중요하게 청년층의 극심한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인가의 여부는 매우 논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고문과 관련하여, "님처럼 늙는 건 '죄'입니다"(미디어스, 2015, 9, 22)라는 제목의 패러디 기사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핑계로 정규직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고, 그 돈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인턴 채용을 일반화시킨 게 이미 2009년이다"라고 대응하면서, "무슨 낯으로 또 임금피크제를 얘기합니까?"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동아일보〉 지면에 등장한 권순환 논설위원의 기고문 "헬조선' 저주의 어두운 그늘"에서, 헬조선이라는 용어는 '음습하고 저질이다'라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공세적인' 톤으로 평가된다. 또한 '굳이 한반도에서 헬조선에 어울리는 곳을 찾으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방하면서도 민주주의도, 인민도, 공화국도 없는 '빈곤, 공포, 죽음의 땅' 북한일 것이다"라고 극단적인 비교를 제기하면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운운하는 것이 바깥 세상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라는 식의 매우 단언적인 진단을 내린다. 헬조선 현상을 세대의 간극이나 관련 행위자들 간의 입장 차이를 넘어, 함께 숙고할 사안으로 다루기보다는 '선동'이나 '저주'와 같은 매우 경색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평가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얼마 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헬조선’이란 낱국은 단어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 헬(hell)과 조선을 합성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동의어 격인 지옥불반도, 개한민국, 망한 민국 같은 말 역시 음습하고 저질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을 유난히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가 끝나면서 젊은이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도 안타깝다. 하지만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지옥’ 운운하면서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식(式) 인식이다. 헬조선이라는 저주가 현실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넘어 특정 세력의 악의적 낙인찍기나 선동과 무관한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헬조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섬뜩한 문구(文句)가 눈에 띈다… 적어도 제3세계 국민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코웃음을 칠 황당무계한 헬조선 선동에 휘둘릴 일은 아니다. (동아일보, 2015, 9, 30)

이렇듯 보수 일간지에 등장하는 논설위원들이 작성한 상당수 기고문들 속에는, 헬조선이라는 의미작용을 청년층이 발화하는 ‘징징거림’ 혹은 현실을 도외시한 ‘배부른 소리’나 과도한 불평과 자기비하 정도로 주로 규정하며, 이 현상을 배태한 이면이나 집합적인 배경에 관한 보다 심화된 인식 혹은 세대 간의 상이한 관점 차이를 엮어내는 유형의 진단은 크게 찾아보기 어렵다.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에서도 “어디에도 천국 같은 나라는 없다”라는 단선적인 표현을 강조하면서, 헬조선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비하’이며, 과장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발화로 그려지기도 한다. 일련의 기고문들 속에서, 현재 이 땅의 청년세대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가 지옥과도 같다고 푸념만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힘든 시절과 이행기의 경험들, 그리고 계층은 존재하며, 불평과 자조만할 것이 아니라 딛고 이겨내야 한다는 요지의 메시지들이 주로 강조된다. 다음의 기고문은 헬조선을 입에 올리는 주체들의 행태를 ‘과장’과 ‘망발’ 등의 매우 공격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비판한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크게 가슴 아픈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비하한 일이다. 자기 사는 곳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가능하면 빨리 떠나고 싶다니 실로 어이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하고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겠지만, 그렇다고 이 나라를 지옥이라고 부르는 건 분명 과장이다. 단언컨대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문제투성이이고, 천국 같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동아일보, 2015, 12, 11)

또 다른 <동아일보>에 실린 기고문 “청년이여! 순응-체념 털고 도전하라”는 청년들에

계 ‘도전정신’을 가지라고 주문한다. 이 글은 청년들에게 태도 변화와 더불어 자기 계발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지는 현실에서 벗어난 다분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메시지를 주로 설파하는 데에 집중된다. 근 미래에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기 어려운 사회 환경과 극심한 구직난이 현실인 상황에서- 혹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다수의 청년들에게 ‘가슴 뛰는 일을 찾아 나서라’라고 주문하는 것은, 일견 수사학적 측면에 집중된 메시지이며 현재 다수 청년층이 대면하는 우울하고 정체된 현실을 돌아볼 때 사뭇 공허하게 들리기도 한다.

‘지식소비형’ 학습을 통해 스펙을 쌓아 평생직장을 향한 대기열(queue)에 줄서는 획일적 경쟁 대신, 그대의 감각을 믿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 나서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찾는 ‘지식 생산형’ 능동학습의 힘을 믿으라. 어디서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평생을 이어갈지 프로티언(Protean) 경력 개발이 훨씬 중요하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갖기를,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바꾸는 용기를 발휘하기를, 아울러 ‘이 둘을 구별하는’ 예리한 지혜를 갖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동아일보, 2016, 1, 4)

〈조선일보〉의 칼럼 “헬조선을 사는 ‘꼰대’”는 “보릿고개를 아파한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없앴다”라고 논하면서, “지금의 2030들도 그들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그들의 부모세대가 그랬듯, 결국 ‘헬조선’이라는 역경과 난국을 돌파하거나 스스로의 노력을 기반으로 풀어야 할 주체라는 측면을 주로 강조한다.

보릿고개를 아파한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없앴다. 첫 아이의 탄생을 아내와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출산의 기쁨을 부부가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었다. 지금의 2030들도 그들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이왕 꼰대가 될 거면 ‘제대로 된 꼰대’가 될 일이다. 적어도 우리의 아픔을 다음 세대는 겪지 않도록 노력할 일이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헬조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노력’이 될지 ‘노오력’이 될지는 해봐야만 알 일이다. (조선일보, 2015, 8, 20)

이 칼럼은 그러한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청년층에게 건네지만, 현 상황에 대한 예리한 진단이나 대책이 없이 ‘노력’만

을 강조함으로써 구태의연하게 들리기도 한다. <조선일보>의 또 다른 칼럼 “젊은이여, 헬조선에 좌절 말고 통일한국을 꿈꿔라” 또한 비슷한 요지의 주장을 설파한다. 헬조선이라고 지칭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심이 감지되는 논의나 대안적인 진단을 제시하기 보다는, 막연히 ‘미래 지향적인 자부심을 가지라’는 요지의 추상적인 주문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제는 스스로 이룬 이 국가적 위상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팔십이 넘은 필자는 몰라도 젊은 세대는 분명 자기 생애 안에 통일된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가슴 벅찬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바라건대 젊은이들이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나이 든 이들의 자부심을 몰라도 좋지만, 자신들이 통일세대라는 사명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장래를 향한 비전과 꿈을 키우고 미래 지향적인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상생과 번영, 통일의 길로 이끌 것이다. (조선일보, 2015, 12, 17)

이러한 유형의 글이 예시하듯이, 보수언론에 등장하는 기고문들이 보이는 한계점은 다수의 글들이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제기되고 서술되고 있는 측면이다. 보수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청년들을 포함하여 당사자집단의 입장에 관한 고려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한 사설과 기고문들이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청년층에게 ‘훈계’와 ‘질책’ 또는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언’ 등을 건네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현실진단이나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할 수 있는 설득력의 구현이나 문제의식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헬조선을 발화하는 청년들의 상황과 이들이 발현하는 ‘마음의 풍경’을 개방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거나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작정 단언하거나 ‘~하라’식의 계몽형의, 그리고 명령어 투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앞서 논의된 기고문들이 예시하듯이, 보수언론의 헬조선 관련 기고문들은 상당수가 종종 지나라하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청년층이 보이는 현실인식의 오류를 짚어내면서, 반성을 촉구하기도 한다.

한편 보수언론의 지면에서 헬조선을 거론하면서 청년들의 역경에 공감하는 논조도 일부 등장하지만, 결론에서는 결국 개인층위의 ‘노력’을 강조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부심과 긍정적 마인드의 필요성을 주로 강조하는 식의 상당 부분 평면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헬조선 현상에 대한 기성세대원으로서의 고민이나 자성 혹은 보다 심화된 진단은 찾아보기 어렵고, ‘임금피크제’와 같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강조

하거나 풀어내는 과정에서 헬조선이라는 화두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¹⁹⁾ 나아가서 이 사안을 직시하거나 성찰적인 문제의식을 정련하는 작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2) 공감·위로형 기고문들의 특징과 함의

공감·위로형의 기고문 및 사설은 진보매체에서 두드러졌다. 매체의 필진이 주로 기성세대인 것에는 보수나 진보나 큰 차이가 없지만, 헬조선 현상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차이가 컸다. 대부분의 글들이 헬조선담론의 부상 속에서 그 책임을 개인의 ‘노오력’이 아니라, 구조 측면의 인식과 개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설정한다. 보수언론들이 주로 취해왔던 ‘마음가짐의 변화’나 청년들의 ‘생각의 변화’를 선불리 요구하지 않고,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거나 청년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 상당한 공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을 제시하는 주요 기고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인들의 위태롭고 그늘진 초상(경향신문, 2016, 6, 14)
- ② 미안한 정년퇴임(한겨레, 2016, 2, 28)
- ③ “‘아 대한민국’과 ‘헬조선’”(경향신문, 2015, 10, 14)

2016년 6월 14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이기형의 칼럼 “대학인들의 위태롭고 그늘진 초상”은 글쓴이의 교육자로서의 자기 성찰과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서 바라본 대학생들의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공감이 짙게 묻어 있다. 청년들에게 무작정 태도 변화를 요구하거나 노력하라고 다그치기보다는, 그들의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가 눈에 띈다.

요즘 대학생들은 결코 한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신없이 바쁘고 경황이 없습니다. ... 자신의 스펙을 올리거나 각종 자격증을 따고 차후에 수없이 작성하게 될 자기소개서에 게재할 ‘번듯한 행적’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학생들은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간택되기가 쉽지 않은 인턴의 좁은 문을 백방으로 두드리며, 자원봉사를 할 기회들을 찾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청년

19) 즉 논쟁을 생성한 일부 기고문들에서는 특정한 정치적 지향성과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서술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노동개혁’과 ‘임금피크제’를 헬조선의 상황과 연계시켜 언급하면서, 이를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즉 상당 부분 의도성이 깃든 서술과 주장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들은 경주마로 훈육되는 게임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기에 온갖 노력을 쥐어짜며, 명들어가면서, 혹은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가치와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갖가지 방편들을 추구합니다. … 이러한 대학과 청년들의 상황을 별로 여과하지 않고 짧게 기술하는 문장을 써가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아닌 데라는 느낌이 진하게 번져갑니다. 명색이 선생인데,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력감과 더불어 자신이 별 도움이 아니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할킵니다. (경향신문, 2016, 6, 14)

비슷한 인식은 〈한겨레〉에 실린 강내희의 칼럼 “미안한 정년퇴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미안함과 더불어 지지의 감정이 배어난다.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바라는 바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보수매체의 기고문들과 궤를 같이 하지만 ‘노력하라’는 보수매체의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표방한다. 이 기고문은 “공포로 부들부들 떨지 말고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으면 싶다”고 말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기를 제안한다.

교단을 떠나면서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학생과 직원, 후배 교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제 대학에서는 누구도 자긍심을 가지고 양질의 학문과 교육, 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 물론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고 바뀌어야 한다. 이 변화, 변혁을 주도할 주체는 누가 뭐래도 젊은 세대다. 나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3포’, ‘5포’, ‘7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란다. ‘헬조선’을 저주하되 공포로 부들부들 떨지 말고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으면 싶다. 30년 전에도 세상을 바꾼 것은 젊은 세대였다. 정년퇴임을 미안한 마음으로 맞으며 내가 그래도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 대학, 사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은가. (한겨레, 2016, 2, 28)

〈경향신문〉에 실린 황현산의 칼럼 “아 대한민국과 ‘헬조선’”(2015, 10, 14)에서도 청년세대가 이 상징적 표현을 외치는 이유에 주목하며 격려하는 전언을 보낸다. 이 기고문은 2002년 월드컵에서 분출했던 ‘거리의 공동체’와 자발적 참여문화의 함의를 되짚어내면서, 이 사건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생성한 문화와 역사의 힘을 환기시킨다. 현 상황에서 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나이에 들어선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세대를 가리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고 부르는 상황을 논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포기’가 힘겹지만, 변혁을 불러올 수 있는 주체 또한 청년층임을 강조하는 발화의 방식을 드러낸다.

그는 또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사는 세계를 지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지옥은 진정한 토론이 없기에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덧붙이면서,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자각하는 사라진 토론과 희망을—‘억압을 이겨낸 생명력’을—회복하는 것이 현 상황을 돌파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헬조선을 ‘어이 없는 망발’ 혹은 ‘배부른 소리’라 명명했던 보수매체의 내 시선과는 적지 않은 시각차이가 드러난다.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채근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자성적이며 현 상황의 청년 문제를 조심스러운 논의와 공유되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칼럼들과도 일정한 공통분모를 보인다. 공감·위로형의 기고문들은 진보매체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글에서 ‘미안함’의 정서가 지배적이었고, 청년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성찰적 반성, 그리고 심정적인 동조와 청년층에 대한 당부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작업들이 적지 않았다.

(3) 심화된 담론작용형 기고문/비평문들의 함의

심화된 담론작용형의 작업은 헬조선 현상에 대한 일정한 숙고할 만한 조명과 비판적 해독, 그리고 보다 심화되고 급진적인 사유 등이 발휘되는 일련의 기고문과 비평문을 말한다. 충고나 공감에만 머무르지 않고 헬조선 담론이 복합적으로 발산하는 정치적 상징성의 함의와 특히 ‘감정구조’에 관한 심화된 비평과 맥락화를 시도하는 작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로 진보매체에 실린 비평적인 유형의 글이 많았다. 이는 진보매체에서 헬조선 담론에 상당한 관심을 투사했으며, 특히 외부 연구자 집단의 개입적인 글쓰기를 통한 공론화의 노력과 분석적 접점을 도모했다는 함의를 드러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기고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헬조선’의 정치적 무의식(경향신문, 2015, 9, 15)
- ② [이택광의 왜? 망한민국(경향신문, 2015, 10, 07)
- ③ ‘헬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한겨레, 2015, 9, 29)
- ④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한겨레, 2015, 10, 25.)
- ⑤ [세상 읽기 왜 분노하는 대신 혐오하는가(한겨레, 2016, 2, 11)
- ⑥ [크리틱 성큼 다가오는 지옥(한겨레, 2016, 3, 18)

<경향신문>에 실린 이동연의 글 “‘헬조선’의 정치적 무의식”에서는 이 담론이 기실 ‘보수적인’ 성격의 담론임을 지적한다. 그는 헬조선이라는 의미작용이 매우 ‘노골적’으로, 그

리고 강하게 세태를 비판하는 듯하지만, ‘직접 행동’이나 공적인 담론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측면을 파고든다. 그는 헬조선 담론이 영국의 핑크문화의 사례처럼 일정한 ‘상징적 급진성’을 발휘하지만 현실에 개입하는 행동으로 전화되지 못하고 몰락해버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담론이 현실의 문제점을 가리는 일종의 ‘마술적 수사학’으로 작용하는 한계를 짚어내기도 한다.

헬조선의 절망과 분노의 글들은 매우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세상을 비난하지만, 그 비난은 비난에 불과할 뿐, 세상을 바꾸려는 직접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헬조선의 분노는 정치적으로 이완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봉합되어 이들 주체의 입장조차 무엇이 정치적 비판이고, 무엇이 탈정치적 냉소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헬조선’이란 작금의 세상을 뒤엎으려는 직접행동을 지연시키거나 해소시키기 위한 조작된 공론장 같아 보인다. 범용화된 현상으로서, 혹은 유포된 담론으로서 헬조선은 헬조선이라는 실재를 기각하고, 오히려 그 체제를 재생산하는 구성적 요소로 작동한다. (경향신문, 2015년 9월 15일 기고문)

이택광 또한 2015년 10월 7일자 <경향신문> 칼럼인 “망한민국”에서, 헬조선 담론 속에 빈번하게 소구되는 ‘망했다’라는 수사가 지니고 있는 탈정치적인 함의와 정치혐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무언가가 ‘망했다’는 인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집합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다수의 헬조선 현상을 둘러싼 인식은 ‘망했다’에 주로 집중되고 있지만 “망한 정치”를 버리고 잘못된 정치적 기제에 관한 질문으로 옮겨가야, 청년 주체들 속에 확산된 헬조선 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생성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기한다.

분명히 ‘망했다’는 수사는 현재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분명하게도 현재의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폐지하고 있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망한 정치를 버리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망했다’는 정서가 놓여 있는 자리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놓는 일이다… ‘망했다’는 수사에 감춰져 있는 ‘누가 망했나’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는 ‘망했다’는 선언보다 ‘잘못됐다’는 선언에 가깝다.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경향신문, 2015, 10, 7)

〈한겨레〉에 실린 기고문 및 사설의 일부에서도 헬조선 현상을 바라보는 분석적인, 그리고 논쟁적인 진단이 담긴 작업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경향신문〉의 분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박노자, 강준만, 김종철 등의 외부 필진들이 쓴 기고문들이 대중적인 영역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작용과 뜨거운 논쟁을 생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를 들면 “‘헬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는 박노자의 기고문은 페이스북에서만 16000번이 넘게 공유되었다. 그는 헬조선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탓’을 하며 성장만을 고대하거나, 그 속에서 각자도생하겠다는 욕망에 포획되고, 지쳐서 절망해 있는 혼돈의 상태가 바로 이 담론이 드러내는 한계라고 강한 톤으로 지적한다. 그는 ‘연대’를 통해서 사회를 바꿔야 살 길이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성장 신화’의 지속이 아닌가 싶다. 여태까지의 성장 속에서 어느 정도의 생계안정을 이룩한 부모세대의 지원에 힘입어 실업자가 돼도 굶을 일은 없는 많은 젊은이들은 ‘헬조선 지옥도’를 그리면서도, 아직까지 경제성장과 각자의 노력이 결국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자기 탓’으로 쉽게 돌린다. 성장이 둔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모양이다. 재벌경제가 아무리 수출을 잘해도 다수의 삶이 나빠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앞으로 몇 년간 더 확인해야, 이 사회를 연대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살길이 없다는 점을 ‘헬조선’의 피해자들이 각오할 것이다. (한겨레, 2015, 9, 29)

한편 강준만의 칼럼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헬조선 현상을 두고 ‘배부른 소리’라고 일갈하거나 욕박지르는 보수매체의 기고문들이 담아내는 논지와 현실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이 현상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 ‘공정’이라고 진단하면서, 기성세대의 구성원이나 보수언론이 제기하는 인식의 협소함과 진단이 발현하는 오류를 짚어낸다.

이런 질책과 비아냥의 선의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헬조선과 죽창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고통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헬조선과 죽창의 파생어로 나온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비유가 잘 말해주듯이, 문제의 핵심은 ‘공정’이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굶주리던 시절의 경험이나 굶주리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욕박지르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한겨레, 2015, 10, 25)

박권일의 칼럼 “왜 분노하는 대신 혐오하는가”에서는 헬조선 담론이 ‘혐오의 담론’이

며 이는 개선·전복이 아닌 도피·방기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 글은 진보매체 내에 등장한 기고문들이 청년들에게 '분노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실 헬조선 담론은 분노와는 거리가 멀며 혐오와 가깝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이 기고문은 청년층 내부에서 이 현상과 관련하여 적지 않게 감지되는 '물화된' 절망과 좌절 및 혐오의 단면들을 보다 분석적으로 풀어낸다.

헬조선 담론이 내미는 선택지는 두 개다. 하나는 헬조선에서 탈출, 즉 '탈조선'하는 것이다. '금수저'와 '능력자' 같은 극소수만 짚 수 있는 카드다. 나머지 하나는 '죽창'으로 서로를 찔러 죽이는 공멸이다. 이 죽창은 실제 무기가 아니라 대안 없는 절망의 물화된 상징이다. 다른 선택지, 예컨대 헬조선을 개선하거나 전복시키는 등의 방법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왜일까? 분노는 주체로 하여금 대상으로 다가가게 만든다. 논박을 하든 보복을 하든, 어쨌든 주체는 대상과 마주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혐오는 다르다. 주체를 대상과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린다. 동물적인 것, 열등한 것이 나를 오염시킬까 꺼림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피하든가, 아니면 대상을 배제하거나 말소해야 한다. 요컨대 혐오를 다른 감정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다. 이 정동은 대상에 대한 개입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분노는 참여와 저항을 부르지만, 혐오는 도피와 방기로 이어진다. (한겨레, 2016, 2, 11)

박권일의 이런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문화평론가 문강형준의 기고문 “성큼 다가오는 지옥”은, 헬조선이라는 생존에 급급하게 만드는 ‘야만적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제에 대한 순응이나 적응을 넘어 적극적인 상상과 저항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이 긴요한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한국사회를 ‘딤러닝’으로 배운 청년들은 이 서바이벌 체제에 적응해서 성공하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적응하고 성공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패배뿐 아니라 이 야만적 체제를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체제 바깥을 상상하고,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다면 미래는 모두에게 진정한 ‘헬’이 될 것이다. 나는 인문학이 그런 저항의 베이스캠프가 되길 원하지만, 인문학마저도 비즈니스로 전락한 오늘날엔 그마저도 요원해 보인다. 딱 그만큼 지옥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오는 것 같다. (한겨레, 2016, 3, 18)

특히 이러한 유형의 해독과 관찰점을 주는 작업들이 <한겨레>에 실린 비평문들 속에서 두드러진다. 즉 현재 청년층이 처한 '지옥 같은 상황들'을 '징후적'으로 동시에 보다 다면적으로 해독하면서, 헬조선 현상이 뿜어내는 독특한 상징적 의미작용의 함의와 이 현상에 대한 일정한 숙고된 비평적 진단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계열의 작업들은 청년층이 표출하는 헬조선 현상의 감정적인 동학과 한계를 단순한 공감이나 지지와 같은 양자택일의 방식을 넘어, 비판과 사유를 동시에 매개하고자 하는 유형의 보다 복합적인 문제제기와 제언을 발휘하는 특징을 보인다.

보수언론에서 '헬조선'이라는 사회적 상징작용의 함의를 세밀하게 풀어내는 분석적인 유형의 기고문과 비평문들을 다수 찾아볼 수 없었던 측면을 고려하면, 이 계열의 일간지들은 헬조선 현상을 분석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특히 담론적인 조명을 통한 의제의 제기과 공적 대응에는 관심이 결여되며, 의도적으로 그러한 관점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진단 또한 가능해 보인다.²⁰⁾ 반면에 진보언론에 등장하는 담론작용형의 기고문이나 비평문들에서는, 헬조선 현상이 발산하는 사회적 함의를 보다 다양한 분석적인 프리즘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이 담론이 공적으로 표상하는 일련의 쟁점에 관한 비판적인 지적과 논쟁적인 해독의 개진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냉소와 '일탈적인' 감정의 표출을 넘어서, 청년층이 '경고음'을 발하면서 제기하는 집합적인 분노와 자기혐오에 관한 심화된 관찰과 더불어 글쓰기 주체의 고민이 배어든 제언들이 꾸준히 제시되는 것이다.

5. 토론 및 결론: 헬조선 현상에 대한 심화된 진단과 지식·공공담론의 개입 필요성

연구진은 이번 작업을 통해서 헬조선 관련 주요 기사들과 기고문들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정파성에 따라 사안의 비중과 핵심을 다루는 상이한 입장들이 발현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보수언론의 경우, <중앙일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헬조선 현상에 관한 보다 조직적이고 심화된 진단이나 심층적인 분석의 사례는 찾아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 진보언론의 경우, 헬조선 현상에 관한 보다 확장된 담론화와 공론화, 그리고 세부주제별로 집중적인 조명과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사례진단을 시도한 바 있다. 진보 일간

20) 이러한 추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시켜 탐구할 수 있는 언론사 내부의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이나 생산자연구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지들은 특히 20~30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의 주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면서, 기성세대의 독자층들에게 그러한 함의와 문제점을 매개하며, 사회적 환기효과와 대응의 필요성을 짚어내는 데에 주된 노력을 기울였다.

광의의 해설형, 그리고 정보 제공형의 기사들을 분석해본 결과, 진보매체와 보수매체 모두 헬조선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사회적 부상의 요인들을 조명하는 기사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신조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성세대 독자들의 궁금증과 의문에 응답하는 일련의 기사들을 생산한 것이다. 진보언론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서, 헬조선과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들, 즉 '노오력', '흙수저', '수저계급론' 등의 파생단어들로 구현되는 연결망을 분석하는 방식의 상세한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에 보수언론에서는, <중앙일보>의 기획을 제외하고,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부상이나 의미작용의 함의에 대해서 분석은 하고 있지만, 관련 기사들의 생산이나, 기사에 활용된 자료의 양적·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진보매체보다는 덜 다양하고 소극적이며, 동시에 주로 평면적인 진단을 내놓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때맞춰 일부청년단체들이 벌인 '헬조선' 관련 단체행동의 경우 진보매체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일정한 정치적 효과와 공론화를 시도했음을 엿볼 수 있다.

연작 및 기획기사에서는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사이에 보다 뚜렷한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향신문>은 <부들부들 청년>이라는 이름의 매우 조직적인 진단과 분석적인 심층성이 상당 부분 발현되는 기획 기사를 내놓았고, <한겨레>는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 선을>이라는 제목의 사회적으로 확장된 문제의식과 관련 사례들이 다양하게 포함되는 특집 기사를 선보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 헬조선과 관련한 연작 및 기획 기사를 내놓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중앙일보>의 <청춘리포트>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제목에서도 일부 감지할 수 있듯, 진보언론에서는 청년이 '왜' 절망하며 구조적인 요인들이 청년 주체들에게 주는 압박의 요인들과 생존을 파고드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춘 기획을 진행했다면, <중앙일보>의 경우 청년층이 자신들이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일정한 대안이나 생존의 방식을 스스로 추구하는지에 관해 상세하게 조명하면서, 무거운 문제의식보다는 상대적으로 푹푹하고 창의적인- 동시에 주로 연성적인 방식의- '리포트' 연작으로 기획을 제시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²¹⁾

21) 이러한 <중앙일보>의 기획은 일견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콘텐츠"의 생산을 통해서 청년층이 견디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짚어냄으로써, 새로운 서사전략을 기반으로 (신규) 독자들의 호응이나 보다 확장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대안을 일부 구현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기획물에서 좀 더 정직한 문제의식의 투사나 청년 주체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보다 분석적이고 진중한 톤의 기사구성이 아쉬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과 관

요컨대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청년들의 주거 및 취업준비 등을 소재로 삼아 가정 환경이나 대학진학여부에 따라 겪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들이나 주변화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전개되며, 개인의 노력으로 그러한 상황을 돌파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에 관해 세밀하게 조명했다면, <중앙일보>의 경우 청년들의 연애와 성(性)이나 술 문화 등 진보매체보다는 가벼운 일상적인 주제들을 사회적 이슈 일부와 결합시키면서 기획연작으로 다루었다. 주로 인터뷰와 사례진단을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들이니 만큼 진보와 보수언론 모두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와 체험을 수렴했다는 점이 공통분모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청년층이 당면하는 집합적인 동시에 구조적인 어려움과 난맥상을 치밀하게 진단하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의제를 추구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양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²²⁾

기고문과 비평문의 경우, 앞서 밝혔듯 기자나 기고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개진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보수언론에서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청년에게 ‘충고’하거나 비판하고 ‘힐난’하는 화법과 어조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반면에 진보언론에서는 ‘헬조선’ 현상이 지니는 ‘사회적 발화’로서의 특징과 함의에 대해 보다 복합적인 논의를 제기하는 작업들이 적지 않았으며, ‘청년’들의 삶에 관해 기성세대로서의 성찰이나 공감된 문제의식의 투사, 그리고 일방적인 질책만이 아닌 심정적인 지원과 고민이 담긴 기고문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보수언론의 지면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헬조선 현상이나 청년 주체들의 고단하고 소진되는 삶에 관한 특집이나 현장감과 복합적인 맥락성이 세밀하게 개진되는 작업을 찾지 못한 채, 소수의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어려웠다. 또한 한국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발과 확산된 좌절감이나 혐오를 발하는 헬조선 담론의 특징을 다면적으로 ‘읽어내려는’ 노력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또한 보수언론의 이 현상을 접근하는 논지와 관점은 ‘자기분열적’이며, 충분히 숙고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못한다. 무한경쟁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당수의 청년 주체들이 표출하는 기득권층이나 지배적 사회질서에 관한 비판과 좌절감을 ‘일부’ 인지하되, 그러한 인식과 감정표출의 사회적 배경이나 관련 쟁점과 반항을 심도 있

련하여 한 언론학자는 “2014년은 젊은 세대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어느 해보다 많았지만 세월호 참사부터 청년실업까지 이들에게 희망적인 이슈는 전혀 없었다”고 논하면서, “단순히 현황을 묘사하는 기사는 의미가 없다.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체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라는 관찰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자협회보 (2014, 10, 15) 기사에서 인용.

22) 예컨대 르포에서, 심층면접이나 참여관찰 등의 복수의 접근방식을 활용하면서 분석적인 심도를 고양하거나, 보다 다면적으로 헬조선을 둘러싼 청년층이 표출하는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해독하며, 이 현상에 긴밀하게 관여하는 크고 작은 맥락성을 세밀하게 ‘육화’하고자 하는 작업들은 특히 보수언론의 지면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게 탐구하는 역할은 크게 발현되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특히 내부자들이 작성한 기명 칼럼들의 경우, 청년층의 '무기력함'이나 과도한 '불만'을 지적하며, 기성세대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에 관한 '준엄한' 비판과 기성세대 중심의 방어적이고 완강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게 감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연하게 관찰되는 트렌드와 관련하여, 이 지점에서 조한혜정 외(2016, 155쪽)의 작업을 인용하면, "주류매체에서 이해하는 헬조선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 탓에 청년들의 불만이 과격하게 표출된 것'" 정도의 단편적인 인식을 크게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물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의 보수언론에 등장한 일련의 기고문이나 비평문에서, 헬조선의 상황에 관한 일정한 문제의식의 공유나 상황적 긴급성을 공감하는 유형의 글들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재 청년층이 처한 매우 심각한 취업지옥이나 일자리 부족 등과 같은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부분적으로 인지하면서, '상황이 어려워도 현실에 치열하게 도전하라', '비판 일변도의 태도를 벗어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음가짐을 잘 가지라', '탈조선 찾지 말고 한국에서 희망과 변화의 단초를 찾아라' 등의 충고나 평면적인 설득작용을 발현하는 메시지와 주제문을 녹여내는 칼럼들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의 지면에서 관찰되는 상당수의 기고문이나 사설은 헬조선 현상에 관한 상대적으로 호흡이 짧은 단상 정도를 제시하거나, 공감의 제스처나 대응의 필요성 정도를 주로 피상적인 차원에서 개진한다. 부연하면 헬조선 현상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과 청년층이 기성세대에게 실망하고 있는 측면에 관한 일정한 이해와 인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제기와 대안의 모색은 주로 추상적이고 당위론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유기적인 흐름을 발휘하기 보다는 산발적인 방식으로 주로 개진되는 것이다.

한편 보수언론에 등장하는 일부의 기고문들은 현재 발현되는 청년 주체들의 인식이 현실을 벗어나고 있거나 '오류'라고 비판하며, 청년층이 발화하는 헬조선 담론과 관련하여, '불평불만'을 개선하는 일부 청년 주체들의 문제점이나, '흙수저를 우려먹는' 특정 세력들에 - 즉 '강성노조'나 헬조선 현상을 '정치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야권이나 진보세력에 - 관한 비판과 '유사논리'를 매개로 지면을 채우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칼럼들의 일부는 청년실업이나 청년들이 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철폐'나 '대기업과 부자들의 각성' 등을 논하면서, 협소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집중된 관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일련의 기명칼럼들은 청년세대들 속에서 생성되는 헬조선이라는 인식이 현재 장·노년층으로 구성된 소위 '산업화세대'가 겪었던 고난이나 심대한 어려움과 비교할 때, 다분히 과장되어 있으며, 그러한 과거에 어려웠던 현실을 청년층이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비판이

나 불만만을 제기한다는 요지의 대화성이 결여된 비평이나 다분히 일방적인 ‘훈계’조의 메시지를 풀어내기도 한다.

진보언론의 경우, 헬조선의 의미구성이나 감정표현을 단순하게 해설하거나 기명칼럼 등의 형식을 빌려 짧게 또는 논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적으로 호흡이 긴 진단과 청년층의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아우르는 일련의 작업들을 시도한 바 있다. 혹자는 이런 작업들이 청년층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는 데에 집합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다 심화된 대안의 모색이나 유용한 제언을 제시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할지 모른다. 이 대목에서 필진의 생각을 밝히면, 현재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청년 주체들의 상황은 어떤 명쾌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특정한 유형의 대안의 모색으로 해결되거나 극복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한다. 요컨대 언론의 역할 외에, 정책과 제도 차원의 개입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정치권력과 관료, 그리고 기업의 책임이 보다 막중한 것이다.

정파성을 달리하는 복수의 일간지들이 제공한 헬조선 관련 기획보도와 재현의 특징을 분석해본 결과,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청년의 ‘당사자성’에 관한 조명과 더불어 적지 않은 관심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지점이라는 판단이 든다.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소수의 보수언론이 참여한 일련의 기획 속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면 대 면 인터뷰와 포커스그룹, 그리고 사례연구 등을 통해 청년 주체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자했고, ‘청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집약적으로 수렴하며 큰 흐름으로 엮어내는 특집 및 연작 기사를 내놓은 활동상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보수언론 중에서 <중앙일보>의 <청춘리포트>는 예외적으로 많은 지면과 다양한 구성으로 청년 문제와 젊은 층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을 선보인 바 있다. 특히 개별 청년 주체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유기적으로 묶어내는 방대한 사례진단의 방식을 매개로 독자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알리는 이러한 언론의 작업은, 그간에 종종 주변화되었던 청년층의 체험과 목소리를 하나의 뚜렷한 의제를 녹여내는 문제영역(problem space)으로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 결코 작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헬조선으로 통칭되는 징후들에 관해 얼마나 세밀하게 다루고 있으며 근접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했는지의 정도는 각 언론사가 지니는 정파성에 따라서 차이가 드러나지만, 언론영역 내 상당수 구성원들에게 헬조선 현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진보와 보수 일간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불안한 현실을 해결하려는 심화된 대책이나 제도적인 개입과 정책적 대안의 제시를 더

결집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지는 못한 측면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집합적인 활동상과 역할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난제의 추구와 함께, 부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헬조선을 실감하는 정도의 차별적 인식이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징후들을 재생산하는 구조적인 동학을 세밀하게, 그리고 더욱 집약적으로 분석해내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르고 있지 못하며, 진전된 조명 작업을 부분적으로나 시도하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²³⁾

더 나아가서 헬조선 현상이라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청년층 내부에는 다양한 결과 차이들이 존재한다. 즉 한 개인으로서 청년의 출신 지역, 가정환경,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주거비용에서 오는 부담감, 학자금 대출의 여부, 취업에 대한 기회비용과 불안의 정도,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자산 측면의 차이 등이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하는 기사들 중 상당수는 청년층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인 차이나 균열상에 관해 일정 부분 소재주의적인 측면에서 다루며, 보다 심화된 분석적인 렌즈를 채용하면서 이 사안을 예민하게 읽어내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현실을 돌아보면, 언론이 헬조선 현상에 주목하며 '청년 문제'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지만, 공적 영역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과 관련된 거시적인 정책이나 제도적 개선책의 모색은 매우 더디며, 소수의 관련 사례가 시도되어도 생산적이지 못한 '정쟁'이나 부정적인 프레임 작용에 휘말리고는 한다. 관련 사례로,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수당'의 제만 보아도 그러하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중 주당 근무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50만 원을 최장 6개월간에 걸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한국일보, 2016, 4, 11). 이 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구직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고안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직권취소명령을 내렸고, 청년들에게 미리 지급된 1개월 치 수당 환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청년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논쟁과 갈등이 재연되기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노사 간의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올해보다 450원이 인상되는 8.1%에 그쳤다.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시

23) 헬조선 현상과 청년문제를 조직적으로 다루는 일간지의 주요 연작 기획물 속에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 관한 제도와 정책 차원의 해결책의 모색이나 관련된 문제의식이 논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획의 주요 방향성은 거시적인 제도적 개입의 문제와 명암을 긴 호흡으로 탐문하거나 전문가 담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난점과 이들이 처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매개로 더 강화된 공적인 환기작용과 의제의 제기를 도모하는 데에 집중된다.

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²⁴⁾ 또한 상당수 청년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29세 7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경향신문, 2016, 8, 11).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도 수도권 일부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유의미한 효과와 반향을 생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한국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헬조선을 둘러싼 재현작용과 이슈화는 최근 들어서는 일정 부분 정체되고도 있다. 언론은 청년을 위한 관련 정책이나 제도적인 관심과 공적 의제의 필요성을 개선하며 이를 위한 상당한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행위자이기도 하다. 일부 등장하고는 있지만, 총선 때 각 정당들이 내걸었던 청년정책에 대한 정치한 진단과 함께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의 효용성에 관하여, 언론이 더 세밀한 분석이나 체계적인 검증과 비판을 수행할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²⁵⁾

학계에서도 헬조선 현상과 특히 청년층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불안과 위기와 관련하여, 보다 활성화되고 주체적인 연구와 심화된 진단이 필히 요구된다. 언론은 헬조선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한 텍스트를 활발하게 생산해낸 반면, 이 현상에 기민하게 초점을 맞추는 학술담론이나 치밀한 경험분석이나 담론작업은 탐색적인 수준에서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을 소재로 한 ‘88만원세대’나 ‘N포세대’ 등의 세대 관련 연구와 기획은 지식생산의 영역에서 주기적으로 추구되어 왔지만, 학계의 연구자들 다수가 익히 알고 있는 대학인들이나 청년층이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에 관해 학문영

24) 노동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관련 주체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할 경우, 6개월간 최대 4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노동부 위탁기관에서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일부라도 있으면 참여하기 힘든 청년층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이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렵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참여자들은 질 낮은 일자리 연계, 위탁기업의 부실한 취업 알선, 제한된 훈련 과정 등 탓에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한국일보, 2016, 8, 18)

25) 청년 주체나 단체들의 활동상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나 사례분석도 요구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쉐어하우스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1만 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알바노조” 등 국내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존주의적 실행’을 도모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활동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명과 보다 확산된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김홍중, 2016; 최철웅, 2011; 천주희, 2016 참고). 한편 정부가 청년층의 극심한 구직난과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청년희망펀드’는 등장한지 11개월여가 지났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ں 출범 당시의 정부 설명과 달리 그간 펀드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고작 100명 남짓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부 열기도 빠르게 식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가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이벤트성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한국일보, 2016, 6, 8)

역의 관심은, 특히 언론학을 포함하여, 여전히 충분히 성찰적이거나 능동적이지 못하다(김수미, 2016; 김홍중, 2015; 방희경·유수미, 2015; 이기형 외, 2015; 이희은, 2014; 채석진, 2016; 천주희, 2016; 한선, 2013 참고).²⁶⁾

사회적 기업의 대표로 있는 이충한(2015)은 헬조선 현상의 함의를 짚으면서 “청년층이 이 사회에 답이 없다는 현실을 간파하기 시작했다”는 대목은 나름 희망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기성세대가 짜놓은 구조, 그들이 낸 시험문제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헬조선담론’을 만들고 유포시킨 2015년은 훗날 변화의 원년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라는 입장을 설파한다. 이러한 관점은 청년세대의 현실을 인지하고 안타까워하는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대응과 문제의식의 조직화를 ‘회구’하는 발언으로 파악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전향적인’ 문제제기는 헬조선 현상을 다면적으로 진단하며, 평면적인 분석을 넘어서는 밀도 있고 치밀한 탐구의 작업들이나, 제도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기민한 공격 담론화의 노력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정부와 학계가 보여주는 관심과 노력의 현 상황을 돌아볼 때, 여전히 심각한 현실과의 괴리감과 함께, 주류 사회과학과 공공담론들의 무력함을 인지하게도 된다.

이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주요 언론이 다룬 헬조선 관련 기사와 기고문 등의 특정 유형의 텍스트에 관한 분석에만 집중하다 보니, 독자들이 헬조선의 문제를 다루는 지면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떠한 의미작용이나 수용의 행태를 생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특히 주요 매체들이 조명한 당대 청년들의 삶과 초상이 실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주체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해 당사자 중심의 해독이나 수용자 분석은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다. 인정컨대 이 작업은 한국사회 속에서 현재 부인하기 어려운 헬조선 현상에 관하여 언론의 재현과 비평담론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인 진단을 제시하는 데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시인 이성복은 시집 <똥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에서 “‘병들어 있음’을 아는 것은 완전한 치유는 아닐지라도, 치유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진은 이

26) 언론학 영역의 경우, 현재까지 청년 문제를 다루는 소수의 작업들만이 등장한 바 있으며, 보다 조직적이며 장기적인 분석과 탐구를 발현하는 작업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학계가 헬조선 현상에 관해 보이는 관심과 분석의 노력은 아직까지 상당히 정체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적 책임성과 성찰성의 방기를 드러낸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년 문제는 매체중심적인 관점이 강한 언론학의 강한 ‘영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다른 분과학문의 몫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한편 출판 영역에서 청년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논하는 적지 않은 기획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언론학자들은 소수이며, 학술영역에서 관련 작업들에 관한 집합적인 관심은 여전히 크지 않다고 사료된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변의 청년층들과 현 상황에 관한 일련의 대화를 나누었고, 한국사회 내 적지 않은 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단순한 인지를 넘어 상당한 자각에 이르렀고 이 사안에 대한 상당한 체화된 감정들을 표하고 있다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이나 반항 자체도, 향후 탐구될 좀 더 숙성한 분석이나 체계적인 비평담론과 공적으로 확장된 의제의 생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시발점이자 긴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헬조선 보도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대면하는 사회경제적인 현실의 주요 측면에 관한 조명과 특히 당사자로서 이들의 입장과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들이 언론에 의해 조명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전향적이라 판단한다. 학계와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 현상에 관하여, 더욱 심화된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진단 및 해법을 고안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그러한 작업의 필요성을 함께 숙고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긴 글을 맺는다.

참고 문헌

- 강정석 (2015, 12, 8). '난민'이 된 한국 청년. <시사N>, 429호.
- 강준만 (2010).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 한국 실업의 역사>. 서울: 개마고원.
- 강준만 (2015). <청년이어,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정치사랑' 외에 탈출구는 없다>. 서울: 인물과사상사.
- 강준만 외 (2011). <한국사회의 소통위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고영철 (2015).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 콘텐츠의 구성방식 비교 분석. <언론과학연구>, 15권 1호, 5-47.
- 김사과·정다혜·한윤형·정소영 (2010). 20대 얘기, 들어는 봤어? '청년세대의 문화와 정치. <창작과비평>, 38권 1호, 169-299.
- 김상민 외 (2013). <속물과 잉여>. 서울: 지식공작소.
- 김서영 외 (2016). <헬조선에는 정신분석>. 서울: 현실문화.
- 김서중 (2016). 헬조선을 심화시키는 언론. <황해문화>, 90호, 281-287.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사회>, 17권, 207-248.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언론과 사회>, 24권 1호, 5-68.
- 김수미 (2016). '자원봉사 시민(volunteer-citizen)' 되기. <언론과 사회>, 24권 3호, 128-177.
- 김학준 (2015, 12, 21). 아, 숨막혀. <월간 틀>, 12월호.
- 김호기 (2015, 10, 8). 헬조선의 사회학. <한국일보>, 26면.
- 김홍중 (2009).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 이론>, 14권, 173-212.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한국사회학>, 49권 1호, 179-212.
- 김홍중 (2016). <사회학적 파상력>. 서울: 문학동네.
- 남재일 (2010).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의 담론적 성격. <언론과학연구>, 10권 3호, 191-224.
- 류동민 (2016).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위기: 탈조선의 사회심리학. <황해문화>, 90호, 45-58.
- 문강형준 (2016, 3, 18). 성큼 다가오는 지옥. <한겨레>, 27면.>
- 문강형준(2012). 자기계발의 시대, 미세하고 부드러운. <문화/과학>, 69호, 121-130.
- 박권일 (2009).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나 성장의 단계나. <황해문화>, 64호, 63-76.
- 박권일 (2016). '헬조선', 체제를 유지하는 파국론. <황해문화>, 90호, 73-86.
- 박권일 (2016, 2, 11). 왜 분노하는 대신 혐오하는가. <경향신문>, 31면.
- 박노자 (2015, 9, 29). '헬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한겨레>, 29면.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권 2호, 47-78.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81호, 10-34.
- 방희경·유수미 (2015). 한국 언론과 세대론 전쟁 (실크세대에서 삼포세대까지). <한국언론학보>, 59(2), 37-61.
- 변정수 (2016, 1, 1). 분노와 짜증으로 견고해진 지옥. <시사N>, 432호.

- 서동진 (2014).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그 음산한 배면. <문화/과학>, 77호, 21-34.
- 소영현 (2012). 한국사회와 청년들. <한국근대문학연구>, 26호, 387-416.
- 송호근 외 (2010). <위기의 청년세대 출구를 찾다>. 서울: 나남.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81호, 35-60.
- 심광현 (2010). 세대의 정치학과 한국현대사의 재해석. <문화/과학>, 62호, 17-71.
- 양기민 (2015, 12, 23). '존중의 원체험' 있어야 '벌레 공화국' 벗어난다. <시사HN>, 431호.
- 양돌규 (2010). 우리시대 어떤 신화에 대한 의문: 대학을 왜 가는가? <황해문화>, 66호, 39-61.
- 엄기호 (2010).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 서울: 푸른숲.
- 엄기호 (2014). <단속사회>. 서울: 창비.
- 엄기호 (2015, 8, 15). '헬조선'에서 청년으로 살아남기. <시사HN>, 413호.
- 오찬호 (2010). 88만원세대를 읽어내는 딜레마. <문화/과학>, 63호, 107-123.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서울: 개마고원.
- 오찬호 (2015). <진격의 대학교: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 서울: 문학동네.
- 우석훈 (2011).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원세대 새판짜기>. 서울: 레디앙.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세대>. 서울: 레디앙.
- 이기형 (2010). 세대와 세대담론의 문화정치. <사이>, 9권, 137-179.
- 이기형 (2011).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269-297.
- 이기형 (2016, 6, 14). 대학인들의 위태롭고 그늘진 초상. <경향신문>, 29면.
- 이기형 외 (2015). 청년주체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구직 경험의 문화적인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72호, 7-51.
- 이동연 (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37호, 135-153.
- 이동연 (2009). '문화적 다중'의 출현과 대안문화행동. <문화/과학>, 60호, 273-300.
- 이동연 (2015, 9, 15). '헬조선'의 무의식. <경향신문>, 29면.
- 이동후 (2009).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 세대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보>, 23권 3호, 409-448.
- 이원재 (2015, 9, 8). '헬조선'을 건너가는 방법. <뉴스토마토>, 기고문.
- 이재현 (2015, 9, 15). 헬조선. <한국일보>, 25면.
- 이충한 (2015, 12, 31). 저렇게 살기 싫은데 방법이 없다. <시사HN>, 432호.
- 이택광 (2016, 1, 13). '진보가 아닌' 진보의 업보, 헬조선. <경향신문>, 30면.
- 이희은 (2014). 디지털 노동의 불안과 희망. <한국언론정보학보>, 66호, 211-241.
- 장강명 (2015). <한국이 싫어서>. 서울: 민음사.
- 장은미 (2016). 2016 한국 언론의 화두 '청년담론'. <신문과 방송>, 543호, 43-46.
- 전상진 (2008). 자기계발의 사회학. <문화와 사회>, 5권, 103-140.
- 전상진 (2010).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한·독사회과학논총>, 20권 1호, 127-150.
- 정민우 (2011). <자기만의 방: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서울: 이매진.

- 정정훈 (2016). 헬조선의 N포 세대와 노력의 정의론. <문화/과학>, 86호, 132-154.
-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커뮤니케이션이론>, 8권 2호, 22-64.
- 조한혜정 외 (2016). <노오력의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서울: 창비.
- 주창윤 (2006).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권 3호, 73-105.
- 주창윤 (2013). <허기사회>. 서울: 글항아리.
- 주형일 (2010). 지방대에 대한 타자화 담론의 주관적 수용의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13호, 75-113.
- 중앙일보 청춘리포트 팀 (2016). <청춘리포트>. 서울: 맥스미디어.
- 채석진 (2016). 친밀한 민속지학의 윤리. <언론과 사회>, 24권 3호, 47-88.
- 천주희 (2016).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서울: 사이행성.
- 최은주 (2015, 12, 15). 언제까지 '노오력' 해야 할까. <시사IN>, 430호.
- 최철웅 (2011). '청년운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66호, 15-50.
- 최태섭 (2013). <잉여사회>.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최태섭 (2016, 1, 20). 청년의 등을 떠미는 무책임한 손. <한겨레>, 29면.
- 하승우 (2016). 헬조선에서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 <황해문화>, 90, 12-27.
- 한기호 외 (2011). <20대, 오늘, 한국 사회의 최전선>.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한선 (2013). 네트워크 시대 '경제적인 것' 되기 (becoming)의 통치술.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431-454.
- 한윤형 (2010). 월드컵 주체와 촛불시위 사이. 불안의 세대를 말한다. <문화/과학>, 62호, 72-91.
- 한윤형·최태섭·김정근 (2011).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홍성태 (2004). 세대갈등과 문화정치. <문화/과학>, 37호, 154-172.
- 홍성현·류용재 (2013). 무한 경쟁 시대의 글로벌 인재 되기. <커뮤니케이션이론>, 9권 4호, 4-57.
- 황현산 (2015, 10, 14). '아 대한민국'과 '헬조선'. <경향신문>, 29면.

Lindlof, T., & Taylor, B. (2010). *Qualitative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London, UK: Sage.

McKee, A. (2003). *Textual analysis: A beginner's guide*. London, UK: Sage.

Wahl-Jorgensen, K., & Hanitzsch, T. (Eds.) (2009).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London, UK: Routledge.

언론의 특별기획

- 경향신문 (2016, 1, 1~2016, 3, 25). 부들부들청년.
- 신동아 (2016, 4월). '좌절세대'와 중산층.
- 한겨레 (2016, 1, 1~2016, 2, 5).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 한국일보 (2016, 1, 12~2016, 1, 15). 한중일 청년리포트.

On Analyzing the “Hell-Chosun” Phenomenon in Contemporary South Korea

Through a Textual Analysis of Media Representation

Aerin Kim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Hye Bin Im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Hansl Chang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Juhwa Park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Seungyeon Ki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Yoon Jung Jeong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Sujin Kim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Juyeong Shin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Keehyeu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Kyung Hee University

This work critically explores the so-called “Hell-Chosun” phenomenon which has gained much attention and response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The younger generation came to coin and utilize this new linguistic expression as well as poignant parody as a way of releasing their anger, cynicism, and frustration in the context of the omnipresent fierce competitions, deepening social instability, and job-related shrinking possibilities. The ‘Hell-Chosun’ phenomenon can be considered as a much complicated manifestation of the structures of feeling for the part of many younger generation South Koreans. This paper especially examines the varying representation of this phenomenon by established dailies through an in-depth textual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pinion pieces and reviews, as well as special issues. In doing so, this work examines the multiple implications of this particular socio-cultural phenomenon in a detailed and critical fashion.

KEYWORDS Hell-Chosun Phenomenon, Media Representation, Textual Analysis, Socio-Cultural Implications